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제 691417호 COPY RIGHT 2024

Monday, November 3 2025 A

"웃돈 줘도 못사는 GPU"… 젠슨황 '26만장 약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 의 기간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 아 최고경영자(CEO)의 약속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그 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 하겠다는 약속이다. GPU는 인공지능 (AI) 시대의 전략자산이다. 고가(장당 3만~4만 달러)지만 웃돈을 주고도 못 구한다. 세계 각국이 GPU 확보에 사 활을 걸고 있는 배경이다. 한국이 26만 장의 GPU를 확보함에 따라 미국과 중 국에 이어 세계 3위 GPU 확보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피지컬 AI 독자 모델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 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GPU 쟁탈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26 만 장 확보는) GPU 공급 안정화 측면 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더해 피지컬 AI 모델 개발까지 국가 AI 전략을 '투 트랙'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 했다. 기존 거대언어모델(LLM) 분야 에서 글로벌 빅테크 모델에 대한 추격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부터)이 지난 달 30 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한편, 이들 세 사람의 개인 재산을 합치면 약 225조원, 회사의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8300조원 에 달한다.

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조 강국 의 이점을 살려 독자적인 피지컬 AI 모 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최근 GPU 확보는 국가 대항전으로 확전됐다. 기업 개별로 나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영국은 지난 9월 엔 비디아로부터 최대 6만 장을 공급받

는다는 협약을 맺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미국과 대형 데이터센터 구 축파트너십등 28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연 50만 장의 엔비디아 AI 칩을 공급받는 내용의 협력이 오간 것 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UAE에 AI칩수출을 금지해왔다.

세계 2위의 GPU 보유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이후 우회로를 활용하거나 암시장 거 래를 통해 첨단 GPU 확보에 총력을 다 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인 H20의 중국수출만 겨우 허가했다. 한 업계 관 계자는 "중국은 수년간 어둠의 경로로 GPU를 확보해 왔기에 정확한 보유량 을 알 수 없지만, 미국(2000만 장)보다 적고 한국보다 많은 것으로 업계는 추 정하고 있다"며 "기술 자립 노력도 활 발히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래픽의 빠른 처리를 위해 개발된 GPU는 초창기에는 게임용 그래픽카 드로 사용됐다. 하지만 2020년 초반 GPU의 병렬 연산 능력을 활용해 암호 화폐 채굴에 쓰이며 수요가 늘기 시작 했다.

이후 2023년 생성AI 챗GPT 등장으 로 AI 열풍이 시작되자 본격적인 GPU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AI 반도체 시 장에서 핵심으로 떠올랐다. 엔비디아 는 AI 개발에 이용되는 GPU 80~90% 를 공급한다. 고성능 칩이다 보니 만

드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다. 하지만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GPU는 정부에 최대 5 만 장,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SK그룹 에 각각 5만 장씩, 네이버클라우드에 6 만 장이 투입된다. 5만 장을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PU로 구동하 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 축한다'고 밝혔다. AI가 스스로 수집 하고 판단하면서 반도체를 만든다는 의미다. 현대차그룹은 GPU 5만 장확 보를 통해 엔비디아와 피지컬 AI(현실 에서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AI) 선점에 나선다. 테슬라의 경우 엔비디아 GPU 12만 장과 자체 AI 칩을 활용하는 것으 로알려졌다

유범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지능로봇연구단 책임연구원은 "GPU 를 대량 확보하면서 빅테크에 의존하 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피지 컬 AI를 통해 다양한 연구·사업 성과 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며 "피지컬 AI 모델이 제조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할 수있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말 박해리 기자

버지니아 사전투표 110만명돌파

1일로 끝난 버지니아 지방선거 사전 투 표수가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2일 오전 에 드러난 집계에 따르면 110만 명이 넘 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로어노크대학의 새로운 여론조사에 의하면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 속 아비게일 스팬버거가 공화당 소속 윈섬 얼-시어스 현 부지사에 앞서 달리 고 있고, 법무부장관 선거에서는 공화 당소속 제이슨 미야레스 현 장관이 민 주당 소속 제이 존스와 약간의 격차를

보이며 앞서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날 발표된 에머 슨칼리지 폴링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지사 선거는 스팬버거 후보가 얼-시어 스후보를 55% 대 44%로 앞서 있고, 법 무장관 선거는 치열한 접전 상태에 있 는데, 민주당소속의 제이 존스 후보가 공화당 소속의 제이슨 미야레스 후보 를 49% 대 47%로 근소한 차로 우위에 있으며, 4%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이슈로 인해 사전투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내면에 는 법무부장관 선거가 중심에 섰는 데, 민주당의 제이 존스 후보가 2022년 당 시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장을 사살해 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자가 발견되면 서 일파만파 번졌고, 존스는 이후 이에 대해 사과했으나 공화당은 맹렬히 비 난했다. 따라서 선거는 주지사 선거보 다 법무부장관 선거가 훨씬 뜨겁게 달 아올랐다. 김성한 기자



아침 햇살에 물든 억새밭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의 억새가 아침 빛에 붉게 물들었다. 목화솜처럼 하 얀억새꽃은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는 붉고, 한낮에는 은빛으로 변화며 시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연출 한다. 억새밭 풍경은 이처럼 찾아가는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사진·글=김정훈 기자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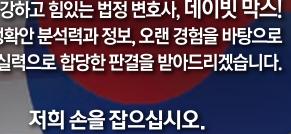
DAVID MARKS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m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영사법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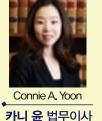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20년간의 법정경력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기물파손 ■ 마약

■ 절도 / 횡령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내일 버지니아 선거 '트렌스젠더' 핫이슈

한인유권자, 교내 안전 및 사생활 노출 우려 투표 전 후보자의 성정체성 입장확인 해야

내일(11/4)은 버지니아의 신임 주지사 와 부주지사 그리고 검찰총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하는 날이다. 공화 당과 민주당의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 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까지 애를 쓰 는 모습이다. 유권자들은 유권자 나름 대로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챙기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선거결과와 관련해 일찌감 치 여러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워 낙 박빙이라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 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그렇다면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정 치인들에게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한인들이 미국으 로 이민을 오게된 이유와 목적에서 엿 볼 수 있다. 지난 해 10월, 미국 내 한 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 사 결과(퓨리서치센터 조사, 2024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이민을 온 주된 이유로 가족 결합과, 교육 기회, 경제

적 기회를 꼽았다. 가족결합에 이어 2 위를 차지한 교육 기회 (Educational Opportunities)는 전체 응답자의 28% 를 차지했다. 전체 표본의 3분의 1에 가 까운 수치다. 교육 문제는 비단 한인 이 민자들의 문제가 아닌 만큼 미국 유권 자들도 교육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 고주목하고있다

교육문제는 자연스레 학교문제로 연 결된다. 그리고 그 학교문제 가운데 가 장논란이되고있는 것중하나가바로 트렌스젠더'문제이다. 현직 버지니아 주지사인 글렌 영킨 주지사는 "모델 정 책"을 발표했으며, 2024년 7월 버지니 아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정책은 주 내 모든 공립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그 리고 영킨 주지사는 학부모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학생의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변화에 대한 정 보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비밀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이전 민주당 행정 부 시절의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따 라 학교가 재량껏 결정하도록 했던 지 침을 뒤집은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 기 준 적용, 이 정책은 학교 시설(화장실, 탈의실 등) 사용과 스포츠 경기 참여 에 있어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로 공화당 성 향의 보수적 학부모는 이같은 영킨 주 지사의 정책에 찬성한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생활, 특히 성 정체성과 같 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 며, 학교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부모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 다른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을 위해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시설 분 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성향의 진보적 학부모 들은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 관련 정 보를 부모에게 강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우울증, 자살 충동 등)를 줄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학생은 가 정 환경 때문에 부모에게 자신의 성 정

체성을 알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 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영킨 주지 사의 정책이 차별적이며, 성 소수자 학 생들을 학교에서 소외시킨다고 비판 한다. 일부지역 교육구(페어팩스 카운 티, 알링턴 카운티 등)는 주 정부의 모 델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자체적인 포 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찬반 비율을 보면, 북부 버지니아 (Northern Virginia)와 같은 도시 지 역은 진보 성향이 강해 이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주 서부나 남 부의 농촌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해 찬 성 의견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이같 은 현상은 트렌스젠더 문제가 여전히 버지니아주 내에서 지속적인 논쟁거리 임을시사한다

영킨 행정부는 2025년 8월, 버지니아 교육부의 요구(트랜스젠더 정책 변경) 를 거부한 알렉산드리아, 알링턴, 페어 팩스, 라우든,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등 북부 버지니아 지역 5개 교육구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절차에 착수하거

나 '고위험(high-risk)' 상태로 지정했 다. 이는 해당 교육구들이 연방 차원의 인권 보호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자체 적인 트랜스젠더 친화 정책을 유지하 려 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전체 유권자 또는 학부모 의 정확한 찬반 비율을 나타내는 최근 의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찾기 어 렵다. 다만, 2022년 영킨 행정부의 모델 정책 발표 당시, 30일간 진행된 의견 수 렴 기간 동안 접수된 55만 2천여 건의 공개 댓글 중 대다수는 해당 정책에 반 대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해졌다. 이는 주 전역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 우 높으며, 찬성 의견과 함께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버지니아 주는 현재 주지사의 강력한 보수적 정책 추진과 진보 성향 교육구 및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정치적, 사 회적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이 문 제가 다시 표면 위로 떠올라 논쟁의 중 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알벗 기자

내일부터 캘프레시 중단…끼니 걱정 현실로

시니어센터에 재개 문의 급증 "식료품 어떻게 마련하나" 우려 푸드뱅크 통해 식품 공급 계획

1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는 캘프레시)'이 일시 중단되면서 수혜 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장기화로 인해 캘프레시 수혜자에 대 한 식료품비 지원이 당장 끊기면서, 지 원 재개 시기 등을 묻는 문의도 잇따르 고있다.

30일 식료품 전용 구매카드(EBT)를 받는 LA 한남체인에서는 캘프레시 지 원금이 충전된 EBT 카드를 이용해 쌀, 라면, 채소 등을 구입하는 한인들의 모 습이 다수 눈에 띄었다.



LA 한인타운의 한 마켓 입구에 부착된 연방정부 'SNAP(저소득층 식품보조프로그램)' 이용 안내 포 김상진 기자 스터. 연방 정부는 셧다운 장기화로 11월 1일부터 SNAP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모(90) 할머니는 "매달 120달러가 EBT 에 충전되는데, 다음 달부터 지원이 끊 기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지워금 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데, 당장 먹

이날 마켓을 찾은 이모(60대) 씨 부 부는 "EBT 카드를 쓴지 4년 정도됐는 데 지난주 우편으로 중단 안내를 받았 을 것을 살 수 없게 될까 봐 걱정"이라 다"며 "다음 달이 걱정돼 오늘 쌀을 한

포 사려다, 다음 달에 쓰려고 지원금을 아꼈다"고 전했다.

LA카운티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식료품 긴급지원을 위한 핫 라인(211)을 운영하기로 했다. 카운티 는 이번 캘프레시 중단으로 약 150만 명의 주민이 식료품 지원비를 받지 못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남체인 관계자는 "손님 10명 중 3 명이 EBT 카드를 사용한다"며 "지원 금이 끊기면 시니어들이 가장 큰 피해 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외상을 줄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 에도 캘프레시 중단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 센터의 김윤수 매니저는 "한인 시니어 상당수가 EBT 카드 소지자"라 며 "이번 중단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를 가장 궁금해한다"고 전했다.

EBT 카드를 받는 한인 업소들도 타 격을 우려하고 있다.

원금이 중단되면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당장 매출 감소가 걱정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LA카운티 공공소셜서비스국(DPSS) 은 긴급지원금 1000만 달러를 투입해 LA리저널푸드뱅크에 지원하기로 했 다. 리저널푸드뱅크는 해당 예산으로 식료품을 구매해 카운티 전역 940개 푸 드뱅크(lafoodbank.org·문의 211)에 공급할 예정이다.

연방 농무부가 운영하는 여성 영유 아 특별영양보충프로그램(WIC)을 통 해서도 식료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1997 번호로 'APPLY' 문자를 보내거 나 웹사이트(startwic.org)에 접속하 면 된다.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식료품 절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레이첼 로드리게스 서장은 "한 인타운에는 소규모 식료품점이 많다" 며 "절도나 강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순찰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즉시

워싱턴 날씨 (°F)



11월 3일(월)66-44

4일(화)	64-39	ď	7일(금)	66-51	Č
5일(수)	72-47	Č	8일(토)	68-45	
6일(목)	62-38	⇎	9일(일)	61-39	

① 위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SALE FA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FE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차고 2, 방 3, 화 2.2



연스 홈케어 서비스

HYUNS HOMECARE SERVICE Always With You!

30년 삼성 HR 경험, 이제는 홈케어 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경험, 사람을 돌보는 마음 -현스 홈케어"

어르신 상담 Senior Consulting Service

- ▶ 맞춘형 개인 간병 서비스 (치매 상담제공 - CDP)
- ▶ Medicaid 신청 및 각종 정부 지원 안내 (푸드 스탬프, 교통 지원 등)
- ▶ Senior Living 안내 (시니어 아파트, 그룹홈 등)
- ▶ 병원 및 약국 업무 대행 서비스
- ▶ 의료기기 및 개인용품 주문 서비스



간병사 모집 **Caregiver Recruitment**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취득 시 추가 혜택 제공)
-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 ▶ 친절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703.507.2492 Mr. H 571.334.3963 Mr. ⊕ Hyunshomecare@gmail.com admin@hyunshcs.com

www.hyunshcs.com



중앙일보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보수의 전략상황' 강연회 성료

KCPAC·AKUS 주최 100여 인사참석

지난 달 31일 애난데일 한인타운 인근 소재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는 '워싱 턴 긴급 구국 강연회'가 개최됐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과 한미 연합회 워싱턴DC(AKUS) 공동 주최 로 열린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 진실 앞에서 각성하라'라는 주제로 약 두 시 간 동안 진행됐다. "오늘 날 대한민국 은 정치 혼란으로 불안한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는 오인환 한미연합회 워싱 턴 회장의 인사말처럼,

에 보수 진영의 대처 방안과 나아가야 할 길 제시가 주를 이뤘다. 세 명의 초 청 연사 중 첫번째 강연에 나선 민경욱 KCPAC 한국 대표 겸 전 국회의원은 "한국 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 력, 그 실상과 증거"와 관련해 나름대 로준비한 내용을 설명했다.



워싱턴 긴급 구국 강연회가 코리안커뮤니티센터 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두 번째 연사인 모스탄 전 국제형사 이번 강연은 한국 정세 변화와, 이 사법 대사는 "한국 위기 상황과 구국 을 위한 국제적 행동"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 그리고 마지막 연사인 전한길 전 한 국학 역사 강사는 "위기를 넘어설 역사 적 지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제목 의 강연을 했다.

특히 세 명의 연사는 모두 한결같이

"나라가 위기일 수록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며 "튼튼한 한미동맹 아래 보 수위 해야할 일과 나아갈 길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워싱턴지역 보수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의 안정과 발전을 모 색했다.

김성한 기자

PIP 학생대회 참가자와 관계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년 전국 PIP 학생대회 대단원 막내려

VA.샌디에이고팀 입상 미주한미동맹재단 주최

미주한미동맹재단(회장 최태은, 이사 장 챕 피터슨)이 한국 국가보훈부 후원 으로 1일 조지메이슨대학 존슨센터에 서 개최한 제3회 PIP 학생대회 최종 결 선이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이날 오후 열린 결선 대회에서는 대 니얼 박(웨스트뷰고교), 앨버트 조(토 리파인즈고교)의 샌디에이고팀이 아 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상을, 강 선영(성신여대), 스텔라 강, 조유나(이 상 맥클린고교), 로버트 윤(조지워싱 턴대), 필립 윤(페어팩스고교) 등의 버 지니아팀이 마크 장 메릴랜드주 하원 의원 상을, 그리고 데이비드김, 제이콥 김(이상세인트폴6세 가톨릭고교), 제 이든 리, 애나벨 리(이상 센터빌고교) 등 버지니아팀이 미주한미동맹 이사장 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최태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 동맹은 개개인의 이야기들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예 선, 본선, 결선을 거치며 지난 1년 동안 PIP 대회 참가 학생들 모두의 이야기

들은 이미 시작됐기에 앞으로도 계속 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달라"고 당부했다.

챕 피터슨 이사장과 이길연 보훈관 의 인사말에 이어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질 레즈먼 전국 법원 속기사재단 디렉터는 축사에서 "미래 한미관계의 주역들을 배출할 중요한 PIP 학생대회 에 심사를 맡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대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 앞 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양국 발전의 교 량이 되기 위한 학습과 경험을 확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이린 신과 마크 장 하원의원은 "결 선에 오른 모든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며, 여러분 모두가 승자라고 생각한다 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유 산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PIP 학생대회는 미주 전 지역 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 중인 학 생들이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 한국 전쟁과 한반도 평화의 의의를 주류사 회에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직접 홍보캠페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후 결 과까지 발표하는 행사이다.

김성한 기자

아이린 신, 3선 필승…자원봉사자들 "비지땀"

버지니아 하원 8지구 마지막까지 운동 총력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제8지구에서 3 선에 도전하는 아이린 신(37.민주) 후보 캠페인의 마지막 주말 이틀 동안의 총 력을 기울이며 필승을 기원하는 '빅토 리' 행사가 1일 헌던에서 열렸다.

마무리 선거운동에 나선 한인 자원 봉사자들은 이날 오전 문고리 홍보물 배포와 유권자 인사에 앞서 한 공원에 모인 후원자들은 4일 선거일까지 최선 을 다해 승리의 기쁨을 나누자고 다짐 하며 파이팅을 외쳤다.

신 의원의 지지자 중 한 정치인인 스 텔라 페카스키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은 이 자리에서 "아이린 신은 지난 임 기 동안 커뮤니티와 주민들을 위해 많



아이린 신 의원 자원봉사자들이 승리를 다짐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 일을 해왔다"면서 자랑스럽고 장래 가 촉망되는 젊은 정치인이라고 치켜 세워 박수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후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 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 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과 기대를 밝 혔다.

한인 봉사자 P모 씨는 "한인들의 위 상을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도 이번에 한인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아이린 신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 기 위해 가가호호를 방문해 신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성한 기자



FDIC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신청 문의 Tel. 703-281-9660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www.toptravelusa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버지니아 주민이 갈망하는 새 변화・발전・희망 Virginia's United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Democratic Ticket

VOTE **11월 4일** Abigail Spanberger Ghazala Hashmi Jay Jones



건강하고 부담없는 헬스케어 구축

근로자 가정에 도움되는 제도 마련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경제정책 실행

전국 최고의 교육시스템 개발과 적용

이민자가 살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Paid for by the VA AAPI Caucus Fund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 통과

연방 상원에서 … 공화 4명 찬성 하원 가결 가능성 매우 희박 트럼프 거부권 가져 실효 없어

연방 상원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 전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관 세) 부과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통과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글로벌 관 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 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 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결의안 공동 발 의자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원내대표, 수전 콜 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

스카) 의원 등이 민주당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30일 표결 결 과 부결된 결의안과 같은 것이다.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 49표, 반대 49표로 동 률을 이뤘고,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반대함으로써 부결된 바 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 일 미국의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 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해 당 결의안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 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 아 순방을 떠난 이번 주 상원에서는 트 럼프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2 건더통과됐다.

지난 28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반 대 48표)이,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 성 50표·반대 46표)이 각각 가결됐다.

하지만, 이들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 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설사 양원을 다 통과하더라도 거 부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결 의안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길 가 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언론들의 평가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비 판하는 측에 상징적인 승리"라면서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의장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 이 희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어떤 것에도 거부권 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질 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美'최장 셧다운' 앞두고 저소득 4천200만명 '밥상 민심' 변수로

11월부터 'SNAP 카드' 보조금 입금 중단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셧 다운'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 서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 대한 식료 품 보조금 지급 중단이 사태의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 농무부는 이달 1일부 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 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보조금 지급 을 중단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 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 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이 중단된 건 1964 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도입 당 시 실물 쿠폰으로 지급돼 '푸드 스탬 프'(Food Stamp)로 통칭되며,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 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 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달 러(1인당 약 250~300달러)가 들어가 는 보조금이 끊긴 것이다.

셧다운 초기만 해도 직접적 배경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 로 SNAP 보조금이 중단되자 당장 장 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SNAP 중단과 관련, 미 언론들은 2일 (현지시간)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쪽에 더 책임을 돌렸다. 보조금 중단의 일차 적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는 데다, 트럼 프 행정부가 당초 SNAP 같은 저소득 층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SNAP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삭감하려 했던 정부 기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 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 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트럼 프 행정부가 약 50억달러 규모의 농무 부 비상 자금, 그리고 '무역 전쟁'을 통 해거둔관세수입계정을활용할수있 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

그러자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지 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비상 자금은 기본 예산이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설령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11월 한 달의 절반도 충당



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 박했다.

다만, 이 같은 반박은 트럼프 대통령 이 2기 집권 이후 의회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연 방정부의 지출을 집행하거나 취소·중 단하는 일이 잦았다는 점에서 모순된 다고 NYT는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AP 보조금 지 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 련, 지난달 31일 트루스 소셜에 "나는 급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정 부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도록 촉구하라"며 척 슈 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 화번호를 공유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SNAP을 합법적으 로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 구하며 "법원이 적절한 법적 지시를 내 린다면, 군인 및 사법 요원에게 급여를 줬던 것처럼 (SNAP) 자금 지원은 나 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AP 지급 중단으로 고조되는 셧다 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단기 지출법 안(임시예산안·CR)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한편, 자신은 명확 한 '법적 지침'이 없어 SNAP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강변한 셈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법원이 계속 일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내전 상태"라며 "그들은 정부 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지 출삭감 조치로 자신들과 부자들의 이 감으면서 도리어 책임을 민주당에 전 가한다고 맞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 통령이 셧다운 와중에도 3억달러를 들 여소위 '트럼프 볼룸'으로 불리는 백악 관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고 비난했 홍정규 기자

미국성인비만율 3년간 현저히 감소

2022년 39. 9%→올해 37. 0%로 '위고비' 등 GLP-1 치료제 확대

미국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위고비(사 진)'나 '오젬픽'과 같은 GLP-1 기반 치 료제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비만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30 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최근 발표한 '미국 전국 건강 및 웰빙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성인 가운 데 비만으로 분류된 사람은 37.0%로 집계됐다.

이는지난 2022년 조사에서 미국성 인의 비만율이 역대 최고치인 39.9%를 기록했던 것에서 약 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는 지난 3년간 미국의 성인 비만 인구가 760만명 줄어든 것을 의미



한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갤럽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비만율 은 2022년 39.9% 이후 2023년 38.4%, 2024년 37.5%, 올해 37.0%로 점진적으 로 감소해왔다.

지난 3년간 미국의 성인 비만율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GLP-1 기반의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어난 것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GLP-1은 음식 섭취 후 소장의 L세 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 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당 뇨병과 비만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GLP-1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2.4%로 지난 2024년 2월조사때(5.8%)의 두배를넘었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GLP-1 사용 비율이 더 높고, 비만율 또한 남성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미국 성인 여성 의 15.2%(2024년 조사에선 6.9%)가 체 중 감량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답 한 반면에 남성은 9.7%(2024년 조사 땐 4.7%)가 맞았다고 밝혔다.

미국 성인 여성의 비만율은 2022 년 조사 때보다 3.5% 포인트 감소한 38.8%였고, 남성의 비만율은 2.3% 포 인트줄어든35.2%였다.

루브르 박물관 절도 용의자 5명 추가 체포

프랑스 수사당국이 파리 두브르 박물 로 체포했다.

로르 베퀴오 파리 검찰청장은 30일 RTL 방송을 통해 전날 오후 파리와 근 교 센생드니 등지에서 용의자들을 체 포했다고 밝혔다.

베퀴오청장은 "이들 중 1명은 수사 다고 밝혔다. 관들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며 "이

관 보석 절도 사건 용의자 5명을 추가 절도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 다"고 말했다. 또 "체포된 다른 용의자 들도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을 우리에 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퀴오 청장은 다만 용의자 추가 체 포에도 도난당한 보석들은 찾지 못했

아울러 검찰은 지난 25일 1차로 체

다. 베퀴오 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이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말

용의자들은 지난 19일 오전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7분 만에 약 8800만 유로(1억200만 달러)으로 추산되는 보 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정혜정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합 🛆 🗁

SCE 배상 vs 소송 제기…이튼 산불 피해 주민 고민

합의시신속배상,추가소송불가 일부주민 "법적책임회피꼼수"

남가주 에디슨사(SCE)사가 이튼 산불 피해 배상 접수를 시작하면서 직·간접 피해를 본 주민들이 고민에 빠졌다. SCE는 자발적 합의를 통한 빠른 배상을 약속하며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민과 로펌 측은 SCE의배상안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SCE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9일 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산불 복구 배상 프로그램'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이튼 산불로 주택 전소 등 직·간접 피해를 본 주민 약 1만 8000명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피해 주민들이 SCE 배상안 수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상안을 수용하려는 측은 적절한 배상액과 빠른 절차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

반면 정신적 피해 등 더 많은 배상액을 원하는 주민은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피해 주민이 SCE 배상안을 수용하면, 향후 추가 피해 사례를 발견해도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다. 29일 SCE 측도 주민이 배상 프로그램에

자발적 합의하면, 향후 법적 소송은 제 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피해 주민을 대변하는 로 펌 측은 SCE의 법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배상액 규모는 더 클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주민을 대리하는 킵 밀러 변호 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SCE가 제안한 배상액은 다른 방법(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아주 작은 일부 에 불과하다"며 소송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산불로 살던 집을 잃은 로렌 랜돌 프도 "에디슨을 상대로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내자는 사람들이 많다. SCE 배상이 최종 제안이라면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산불 피해배상 대상은 주택 소유주, 세입자, 지역 상공인, 사망자 유가족등이다. 배상 유형은 사망, 주택 전소또는 파손, 사업체 손실, 부상, 연기 및 재로 인한 피해다. 지난 1월 발생한 이튼 산불로 알타데나 주택 약 9400채가전소또는 파손됐고, 19명 이상이 목숨은 이었다.

SCE 보상안에 따르면 주택이 불에 탄 소유주는 1500스퀘어피트 규모 기 준 재건 배상비로 최대 90만 달러를 받 을 수 있다. 사망자 피해배상은 기본 유 가족 피해배상 150만 달러, 배우자와 부 양가족 1인당 추가 배상 50만 달러가 가 능하다. 〈본지 9월 19일 A-4면〉

또한 주택 전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성인 1인당 기존 10만 달러에서 11만5000만 달러, 어린이 1인당 기존 5만달러에서 7만5000달러로 늘었다.

SCE 측은 배상 청구 증빙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빠른 배상을 원하는 주민은 접수후 90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배상 청구 및 안내는 웹사이트(sce.com/directclaims)를 참고하면된다. 김형재기자



KAF, 자선 골프 ··· 15만불 모금 한미재단(KAF)이 주최한 제2회 자선 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어바인 스트로베리 팜스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한인 비영리단체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제이미슨 프로퍼티스와 H마트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총 128명이 참가해 약 15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트럼프관세정책 지지율 33%

국정지지율보다 8%P 낮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관세 정 책에 대한 지지도가 국정 전반 및 다른 개별 정책들에 대한 지지도에 비해 낮 게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지난달 24~28일 여론조사기관 입소 스에 의뢰해 미국의 성인 남녀 2천725 명을 상대로 실시한 뒤 2일 보도한 조 사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 지하느냐'는 문항에 지지한다는 응답 은 33%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 이 문항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절반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져 오차범위는 ± 2.8%P다.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 율인 41%(오차범위 ±1,9%P)에 비해 8%P 낮게 나타난 것이다.

경제(37% 지지), 이민(43% 지지·이상 오차범위 ±1.9%P), 이스라엘 및 가자 상황(46% 지지), 범죄 문제(44% 지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40% 지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39% 지지), 연방정부 운영(36% 지지·이상 오차범위 ±2.8%P) 등 국정의 다른 항목에비해서도 관세에 대한 지지도가 유독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1월 20일) 이후 대대적으로 도입한 관세가 미국의 세수를 늘리고, 미국으로의 거액 투자와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을 유도하고 있다며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민심은 물가 상승 우려를 낳고 있는 관세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오차범위±1,9%P)에 응답자의 64%는 '(권한 확대 방향으로) 과도하게 가고 있다'고 답했고, 30%는 '대체로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잔불 남았는데"…지휘부 철수 지시

라크먼진압소방관문자공개 강풍예보에도감시 중단지적도 LAFD지휘부 냉각확인 반박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낳은 팰리세이 즈 산불이 올해 첫날(1월 1일) 발생한 '라크먼 산불'의 잔불이 며칠 뒤 다시 살아난 '잔류 화재'였던 것으로 결론 난 가운데, 라크먼 산불 진압 소방대 원들이 당시 잔불이 남아 있다고 보고 했음에도 지휘부가 철수를 지시했다 는 문자 내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스가 확인한 소방대원 문자에 따르면, LA소방국(LAFD) 대원들은 8에이커 규모의 라크먼 산불이 진화된 다음 날(1월 2일), 일부 지면이 여전히 뜨겁고 나무 그루터기에서 열기가감지된다며 잔불 감시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휘부는 현장에서 철수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 소방 관은 "(지휘부의 결정은) 나쁜 결정이 라고 했지만 결국 철수했다. 결과는 모 두가 아는 대로"라고 적었다.

이후 1월 7일 강풍이 불며 불씨가 되살아났고, 이 불은 퍼시픽 팰리세이즈· 말리부·토팡가 일대를 휩쓸어 12명이 숨지고 수천 채의 주택이 소실됐다.

비공개를 요청한 소방대원들은 "잔불이 남아 있었다는 걸 현장 대원들은 알고 있었다"며 철수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면 LAFD 측은 "산불은 냉각 확인 (콜드 트레일)까지 거쳐 완전히 진화됐 다고 판단했다"며 "뿌리 깊은 수목 속 에서 보이지 않게 남아 있던 '잠복 화 재'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현직 소방 수뇌부 일부는 "강풍 예보가 있었던 만큼 며칠 동안 지속 감시하는 것이 통상 절차"라며 "사용 가능한 모든 장비·열화상 기술을 썼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피해 주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으며, 이미 제기 된 소송과 연방 상원 공화당 주도의 조 사에 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트레이시 파크 LA시의원은 "연초 산불의 재발화 가능성을 알면서도 왜 추가 인력과 장비가 배치되지 않았는 지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크리스 틴 크로울리 전 LAFD 국장은 대응 미 흡 논란 이후 경질됐고, 이에 대해 부 당 인사라며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 중 이다.

송영채 기자













경찰, 여전히 총으로

정신질환자 다룬다

비무장대응대신무장진입고수 1년전양용총격비극반복우려 배스시장 "총으로 접근하면 안돼"

정신질환자와 마주한 현장에서 LA경 찰국(LAPD) 대응 전략은 여전히 '치 료'보다 '제압'에 머물러 있다.

총 대신 상담이, 명령 대신 치료가 필요한 순간에도 경관들은 여전히 무 장한 채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LA시 감사관실은 최근 보고서를 발표해 LAPD의 정신질환자 대응 정 책의 문제점〈본지 10월 30일자 A-1면〉 을 지적했다.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은 "무기 사용 방침이 모호하고, 환자와의 대면 방식 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다"며 "정신 건강 개입의 성과를 환자 안전이 아닌 '경관을 얼마나 빨리 해방시키느냐'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자체가 위기 를 악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정신질환 자는 불안과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 기 때문에, 고성 명령이나 물리적 접근 은 오히려 흥분과 공격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을 닫거나 대화 를 거부하는 행동 역시 의료적으로는 안정을 위한 방어 반응으로 해석된다. 즉, 기다림과 비자극 환경 조성이 치료 의 첫 단계라는 설명이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는 "정 신질환자를 대할 때는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찰은 '얼마나 위험한가'만을 먼저 생각한 다"며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의 종류마다 대응 방식 이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전문가가 아 닌 경찰이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경찰이 받는 36시간의 정신건강 개입훈련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평생 이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조차 환자의 상태를 단번에 판 단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가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한인정신과의사협회 조만철 박사 역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은 치료 행 위"라며 "지금처럼 경관이 주도하고 전문가가 뒤따르는 구조는 거꾸로다. 의료진이 판단하고 경찰은 안전을 보 조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

그는 또 "비살상 무기조차 환자에게 는 폭력적 경험이 될 수 있다"며 "환자 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대화와 관 찰을 이어가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라 고 덧붙였다.

캐런 배스 LA시장도 경찰의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스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를 총으 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건 의료의 문제이지 범죄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는 더 이상 총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접 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무 장위기 대응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 신건강 전문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한계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한인 남성 양용(당시 40) 씨 총격 사망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양씨 가족 은 LA카운티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 청했지만, 한인 클리니션 윤수태 씨는 별다른 대안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후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관은 진입 2분 30초만에 총을 쏴양씨를 살해했다.

조 박사는 "그 상황에서 목표는 보 호와 병원 이송이어야 했다"며 "경찰 의 대응은 제압 중심이었고, 이는 치 료가 아닌 진압으로 의료의 영역을 벗 어난 접근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들 어 LAPD의 총기 발포는 35건으로, 이 중 상당수가 정신건강 위기 상황과 관 련됐다. LAPD 연례 무력 사용 보고서 에 따르면 2017~2023년 사이 발포 사건 의 약 31%가 '정신건강 위기 상태로 인 지된'인물을대상으로한것으로집계

강한길 기자



한인타운 한복판서 은행 강도 ··· 용의자 현장 체포 30일 오후 LA한인타운 중심가에서 은행 강도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쯤 윌셔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의 웰스파고은행에서 일어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짙은 색 후디 차림의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은행 직원에게 위 협을 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은행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오후 내내 영업이 중단됐다.

우편물분실가장 많은 도시 LA

최근 3년간 9713건 불명예 주별로는 가주 12만건 최다

국내 우편물 분실·실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가주 에서만 12만여 건이 사라진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LA는 도시별 분실 건수 1 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가상 우편함 서비스 업체 '포스탈 (Postal)'이 정보공개청구(FOIA)를 통해 확보한 우정국(USPS)·우편검열 국(USPIS)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우편물 분실·도난 건 수는 54만2000여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주는 12만147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위 텍사스(4 만9162건)보다 47% 많은 수준이며, 이 어 뉴욕(4만1859건), 플로리다(3만6741 건), 일리노이(2만1509건) 순으로 분실 사례가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분실 건수에서도 가 주는 308건으로 전국 평균 158건을 크 게 웃돌았다. 최고치는 366건을 기록 한 워싱턴DC였고, 가주는 두 번째로 높았다.

가주에서는 특히 '배달 후 분실' 신 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22~2024년 사이 2만5691건의 우편물이 배달 이후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관해 포

스탈은 현관 앞 도난의 문제가 심각해 졌다고 지적했다.

도시별로는 LA가 최근 3년간 9713 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카고(9703건), 브루클린(9024건), 휴스턴(8343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LA의 배달 후 분실 건수는 2511건으로 시카고·브루클린에 이어 전국 3위였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배달 후 분 실 사례가 15만 건이 넘었으며, 월평균 4100건 이상 신고됐다. 포스탈은 "배달 후 분실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신 고 시스템 강화와 지역사회 경각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샤워 중 뜨거운 물에 화상 입고 숨져

샌호세 호텔서 70대 남성 온수 온도 제한 규정 어겨

북가주 샌호세의 한 호텔에서 샤워를 하던 70대 남성이 고온의 온수에 화상 을 입고 숨졌다. 유족은 호텔 측의 중대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KTLA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LA 거주 테릴 존슨(72)은 지난 5월 22일 손 벗겨지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는 내 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녀의 대학 졸업식 참석을 위해 가족과 용이 포함됐다.

함께 샌호세를 방문했다. 숙소는 공항 인근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인 & 스 위트'였다.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존슨은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 견됐다. 손자가 확인했을 때 그는 뜨거 운물에 부분적으로 잠겨 있었으며, 가 족이 구조를 시도했으나 물이 지나치 게 뜨거워 즉시 꺼낼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가족들이 피부가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시소는 존슨 의 신체 약 3분의 1 이상에서 심각한 화 상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규정상 샤워 온수는 화 씨 120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소송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호텔 온수는 화씨 134~136도에 달했다.

유족은 "호텔이 기본적인 안전 기준 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과실

강한길 기자

영국 경찰 "기차 흉기 난동, 테러 아냐"

1일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을 달리던 열 건이 테러 공격이 아니라고 밝혔다. 차에서 무차별적인 칼부림으로 10여명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2 이 다친 것과 관련, 현지 경찰이 이 사 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이번 일이 테러 사건임을 시사하는 것은 전 무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영국 교통경찰 소속 존 러브리스 경정은 "사건의 동기 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

라면서 사건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 2 명 모두 영국 국적자"라고 전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30대의 남성으 로, 1명은 32세의 흑인, 또 다른 사람은 카리브해 혈통의 35세 영국 국민이라

고 러브리스 경정은 설명했다.

이들은 1일 저녁 케임브리지대학 근처 를 지나던 런던 킹스크로스행 객차 안 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11명을 다치 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운동상해/직장상해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Dr. 이형훈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Practitioner (C.C.E.P.)

Neck Pain Clinic in GA

(Mark H. Lee DC, CCEP, FIAMA)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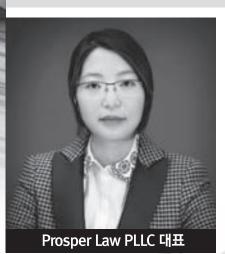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코너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한아름(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챈틸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CUCKOO: BLACKFRIDAY EVENT

기간: 10.30.2025-11.25.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11월 내 설치

CUCKOO 더블 타사보상 이벤트

일시불 구매

최대 **25**%

5년 이상 렌탈 시

최대 5 개월 렌탈비 할인

♣ 특별 사은품 증정



BRAND STORE

쿠쿠 AS 공식 수리처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Tel. 410-750-8011 H Mart Annandale Tel. 240-595-2257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TN102S, CP-TN102GPK, CP-P012T/G, CP-P011T/G, CP-QN1401SW, CP-KN501HW, CP-FR601HW, CP-FR601SW,CP-FR602SW, CP-ACR1620SW, CP-ABNC100GWH,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 반 제 품 CP-ADR051UW, CP-MN031W/WH, CAC-C1020FW, CAC-AA0910FW, CBT-IS1131REW/RRW, CBT-I1030RW, CWS-AO201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조지아의 악몽' 이후 '韓기업 최소 6곳, 대미 투자 철회·보류"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다수 의 한국 기업이 계획했던 미국 투자 프 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WP)가 1일 보도했다.

WP가 미국 주재 컨설턴트와 변호사 등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 최소 2개 사 가 미국 내 계획했던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했고, 최소 4개 사가 일시 중단했 던 대미 투자의 보류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컨설턴트와 변호사들은 고객 과의 사업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대미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류한 해당 기업들의 이름은 공개하 지 않았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미국-한국 경 제 협의회 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국 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한 한국 기업 이 미국 내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었으

나,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우 려해 결국 한국에서 공장을 확장하기 로방향을선회했다"고 전했다.

덴버 소재 법률회사 '홀랜드 앤드 하 트'(Holland & Hart)의 크리스토머스 이민 변호사 역시 "한국의 한 대형 IT 기업이 이번 사건 이후 미국 진출 계획 을 접고 한국이나 인도에서 입지를 확 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9월 현 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 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대 대적으로 단속해 300명 이상의 한국 인 노동자를 구금했으며 노동자들은 정부 간 협상 끝에 구금 7일 만에 석방

이번 사건은 한국과 미국 간 경제 협 력의 상징적 현장에서 벌어진 만큼 대 규모 대미 투자에 치명적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후 한미 양국은 재발 방지대 책 마련에 합의했지만 이민 단속의 여

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토머스 변호사는 "이번 단속의 여파 로일본과 한국기업, 그리고 몇몇 다른 고객사들이 '당분간 모든 것을 보류하 겠다'고통보해왔다"고소개했다.

이러한 투자 위축의 배경에는 이민 단속 탓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 정부의 새로운 비자 규제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WP는 짚었다.

미국에 투자한 동아시아 기업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컨설턴트들은 한 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적자들이 미국 에 출장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했 다. 이러한 불안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대폭 인 상하면서 더욱 커졌다.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인트라 링크의 조너선 클리브 한국 대표는 "직원들이 미국 파견을 꺼리는 마음 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



미국, 한국현장 이민단속 영상 공개…손발 결박된 채 줄줄이 연행

적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P 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투자 친화적인 경제로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한국 '블랙이글스'에 급유 거부

"독도 하늘 날아서"

한・일 양국이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한국 공군의 일본 자위대 기 지 급유 계획이 일본의 일방적인 취소 로 무산됐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최근 독도 상공을 비행 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공군 이 이달 중순 아랍에미리트(UAE) 두 바이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 오키나 와현 나하(那霸) 기지에 들러 급유하 는 방안을 한 일이 협의 중이었지만 불 발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 서 급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 다. 양국이 실질적 군사 협력의 물꼬를 트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됐다.

양국은 아직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상 무상 대여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일 본 내에서는 이 계획을 계기로 향후 ACSA 체결 등 양국 간 방위 협력이 본 격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블랙이글스 편 대 일부가 최근 독도 상공에서 훈련 비 행을 한사실을 확인한 뒤 급유 지원 계 획을 전격 취소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인 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것에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 다. 결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틀 뒤인 30일 경주에서 열린 한일 정 상회담을 앞두고 급유 지원 계획을 중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일본정부관계자는신문에 "매우유 감이지만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며 "그런데도 향후 협력 강화는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 를 자국 고유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양국 간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구체적 확인은 제한된다" 면서도 "독도 인근 비행은 두바이 에어 쇼 참가를 위한 정상적 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 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말 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 장관회의(ADMM-Plus)에서 첫 회담 을 갖고, 인도·태평양 안보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한일 간 공조 강화의 필요성 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관련 사 안을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지혜 기자

여당, 오늘 '사법 정상화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 정 개편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

올해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마무리되자 사 법부 개혁 논의에 다시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의제를 내걸고 입법 화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사 법행정 시스템까지 개혁 대상으로 지 목하고 TF 가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 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 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 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



한달만에 다시 뜬 한강버스, 첫날 3200명 탔다

전기고장 개선, 지각출발도 줄여

한강버스 운항이 지난 1일 재개됐다. 서울시는 수상 대중교통의 핵심인 안 전성과 정시성 등을 높이기 위해 9월 29일부터 한 달가량 승객을 태우지 않 은 채 시범운항 훈련에 들어갔었다.

운행 재개 이틀째인 2일 오전 9시 첫 출항지인 잠실과 마곡 선착장에서는 시민 34명, 13명이 각각 한강버스에 올 랐다. 중간 선착장인 압구정·여의도에 이르자 '첫 배'임에도 정원(199명)의 절 반가량이 찼다.

전날(1일)에는 승객이 더 많았다. 1일 하루 동안 3245명의 시민이 한강버스

를 이용했다. 오후 시간대의 경우 탑승 에 필요한 번호표 발급이 마감될 정도 로 인기였다.

서울시는 시범 운항 기간 중 한강버 스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전기계 통 이상과 같은 잔 고장 개선에 집중했 다. 시범 운항 기간 한강버스에 여러 스 트레스를 주면서 오류를 잡았다고 한

다. 'QR코드'를 통한 간편 승선 신고 뒤 선수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해진 시간에 줄발·도착하는 정시 성도 향상됐다. 지난 1일 잠실에서 오전 9시 출발한 한강버스의 경우 세 번째 선착장인 옥수에 37분 뒤 도착했다가 정확히 2분 후 다시 출발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도 승객을 태운 뒤 오전 10시23분 다음 선착장인 망원 으로 정시 출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달여 훈련 기간 (선장들의) 선착장

접안·이안 숙련도가 향상돼 정시성이 강화됐다"며 "2일에도 거의 제시간을 지켰다"고 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정식 운항 전 "선착장 접근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 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9호선 개화 역환승센터~마곡선착장 등을 잇는 시 내버스 8개 노선과 3개 무료 셔틀을 운 행 중이다. 자전거도 한강버스에 실을

김민욱 기자



受養量和學等型 11-01= 一个 美心正常知识以口口

\$645,000

H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589,000

\$670,000

방3, 화2.5, 차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방4, 화3.5, 차고 2, 최고 학군, RT267/7, 덜러스 공항

\$399,000 3. 맥클린 콘도



4. 사우스라이딩 타운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 Bristow 55+ single \$750,000 Pending 방4, 화3.5 차고 2 2.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



\$649,000 1997년, 방4, 화3.5 차고1, 뒷숲,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멕 몰/RT95, RT1, Rt234,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룩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데크,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





5649 Mount Gilead Rd, Centreville, VA 20120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케어 받을 수 있습니다

홈 케어

데이 케어

양로 호텔

가정 돌봄 센터



버지니아 열린 헬스케어 대표: 김종훈

문의 및 안내

Mobile: (703)268-0107 Office: (703)280-0910

email: info@VAOHCARE.COM

AI 깐부회동, 젠슨 황 34세 딸의 작품

'아빠 밀착보좌' 매디슨 황

한 달 전 방한, 치맥장소 직접 골라 이재용·정의선선물'하쿠슈' 전달도 엔비디아5년차.오빠보다직급높아

지난달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왜 깐부치킨을 찾았을까. '치맥(치킨+맥주)' 회동 성사 과정을 잘 아는 복수의 여권 인사는 "황 CEO 의 딸인 매디슨 황이 기획자"라고 말 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깐부치킨 매장 을 콕 집은 것도 매디슨 황이었다고 한 다. 익명을 원한 여권 관계자는 "매디 슨황이 친한 친구라는 의미의 은어인 깐부를 직접 타기팅해 장소를 고르고 '인공지능(AI) 깐부' 결성이란 콘셉트 에서 그날 행사를 기획한 것"이라고 전

매디슨 황은 한 달 전 먼저 방한해

엔비디아와 협력관계인 관련 기업들을 방문할 때 이 매장을 치맥 회동 장소로 선정했다고 한다. '깐부'라는 단어는 드 라마 '오징어게임'의 "우리는 깐부잖 아"라는 대사로 세계에 알려졌다.

젠슨 황은 치맥 회동 직전 가게 앞에 서 취재진에 "저는 특히 친구들과 치킨 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걸 좋아한다. 그 래서 '깐부'는 그런 자리에 딱 맞는 곳 이라고 생각한다"고 장소에 의미를 부

황 CEO와 함께 방한한 매디슨 황은 이날 행사 내내 아버지보다 한발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하는 등 밀착 마크했 다. 황 CEO가 두 회장에게 일본산 고 급위스키 하쿠슈 25년산을 사인해 선 물할 때도 이 두 병을 직접 아버지한테 전달한게 그녀다.

1990년생인 매디슨 황은 2020년 엔 비디아에 입사해 피지컬 AI 플랫폼과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다. 매디슨 황은 회사 내에서 오빠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그의 딸 매디슨 황(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하기 위해 서울 깐부치킨 삼성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급을 달고 있다. 매디슨 황은 미국의

스펜서 황보다 높은 시니어 디렉터 직 유명 요리학교 CIA를 졸업한 뒤 프랑 스의 르 코르동 블루에서 제과·제빵과

와인 양조를 공부한 뒤 2015년부터 4 년간 프랑스 명품 기업 루이뷔통모에 헤네시(LVMH)에서 근무했다. 엔비 디아 입사 후 고속 승진한 매디슨 황은 아버지의 강연 등 전 세계 일정에 자주 동행한다.

황 CEO는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화 백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접 견할 때도 딸을 데려가 소개했다. 이 대 통령이 매디슨 황과 인사할 때 황 CEO 를 향해 "따님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너무 젊어보이신다"고 하자 황 CEO는 "(딸이) 34살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가 비밀"이라고 말하자, 황 CEO가 "죄 송하다. 제가 지어낸 숫자다"고 농담으 로받았다.

황 CEO는 이날 접견에도 함께한 이 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을 "치맥 동료 들"이라고 소개하며 "다음에는 대통령 도함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황금마니아' 트럼프엔 금관 모형 … '바둑 애호가' 시진핑엔 바둑판

이대통령,미·중정상디테일차별화 미국엔평화·중국엔수교33돌강조 트럼프207분,시진핑607분함께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 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둘 다 국빈 자 격으로 방한했다. 정상회담과 식사 등 기본적 일정은 비슷했지만, '디테일'은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는 지난달 29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87분 간 확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했다. 곧이어 리더스 만찬에서도 2시간가량 같이 식사했다. 1박2일 동안 약 207분 간함께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은 지난달 31일 과지난 1일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 력체(APEC) 정상회의 1·2세션 약 4시 간, 각국 정상 초청 만찬 약 2시간30분 동안 함께했다. 1일 오후 정상회담(97 분), 친교 일정 및 만찬(120분)까지 합 이 대통령·트럼프 함께 보낸 시간 **2()**7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선물한 금관과 무궁화 대훈장. [사진 대통령실]

치면 두 정상은 2박3일간 약 607분 동 안 함께했다.

정부가 준비한 선물도 달랐다. '금 사

랑'으로 유명한 트럼프에게는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는 이를 직접 에어포스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게 선물한 바둑판과 쟁반. [사진 대통령실]

6()7분

이 대통령·시진핑 함께 보낸 시간

싣고 가겠다고 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 했다는 후문이다.

시진핑을 위한 선물은 본비자 나무

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이었다.

양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하고, 시진핑의 2014년 방한 때 한국이 바둑알 을 선물했다는 점을

> 미국 국빈 오 찬은 '피스 릴 리'로 장식하 고 'PEACE!(평 화)'란 문구를 그 린 디저트 접시 가 등장, 트럼프의 '피스 메이커' 자부

고려했다고 한다.

심을 추켜세웠다. 중국 국빈 만찬에서는 수 교 33주년을 상징하는 삼색 매작과와 삼색 과일이 나왔는

데 올해 양국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다.

심석용 기자

"숙제 안해서"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000번 시킨 아빠 체포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등학 생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50대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 찰에 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도봉구 집

에서 고등학생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를 했으나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기관 측 신고를 받고 출동 딸은 실제 800여회 앉았다 일어서기 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 도록 임시 조치를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 는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전력이 있었 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선물 1 "내년도 메디케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9월15일부터 30일 사이에 ANOC편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가지고 저희 회사로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내년도 혜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유파이낸설이 정성으로 도와드립니다



선물 2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은퇴는 다가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이 없거나 충분히 성장하지 않죠? 이번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보세요.

집안과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 이제는 살아서 성장하는 자산으로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유파이낸설 그룹입니다.



선물 3 "혹시 모를 사고, 준비되셨나요?"

미국에서 열심히만 살면 될줄 알았지만 현명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노력해서 모은 것을 한 번에 잃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 누가 대신 병원비를 내줄까요? 장기간호가 필요할때 누가 나를 간호해줄까요? 지금 준비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파이낸설이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파이낸셜 그룹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인간이 전쟁 멈출 때 더 선한 AI 나온다

세계인문학포럼 강연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만난 권헌익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는 "AI의 미래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상조 기자

권헌익 케임브리지 석좌교수 조언 "인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AI 방향성 득되게 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4일 안동 세계인문학포럼서 강연

"인공지능(AI)은 (인간을 통해) 배우 는 기계니까. AI가 인간과 세계에 득이 되길 바란다면, 우리부터 먼저 그렇게 돼야죠."

눈앞에 다가온 AI의 시대는 유토피 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엇갈리는 전 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권헌익 영국 케 임브리지대 석좌교수는 이렇게 우문현 답했다.

권 교수는 2007년 '인류학의 노벨상' 으로 불리는 기어츠상을 받은 세계적 인 학자다. 2022년 한국학자 최초로 120년 역사의 영국 학술원 회원에 선발 되기도 했다. 자신의 말처럼 "AI 전문 가는 아니지만" 오는 4~6일 경북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8회 세 계인문학포럼에서 'AI와 사회적 영혼 (Social Soul) 사이'를 주제로 기조 강 연을 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만나 인류학자가 바라보는 AI의 미래 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인류학자가 AI 강연을 한다.

"원래 기술 혹은 디지털 시대를 연구 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당 면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책무 니, AI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강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요즘 AI는 지능만 이야기한다. 하지 만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영혼 혹 은 의식(consciousness)이다. 지능은 사람에 따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도 있지만, 영혼은 누구나 평등하게 갖 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사

회과학자는 '사회적 영혼' 혹은 '집단적 (collective) 의식'에 관심이 있다. 개인 을 넘어 부족사회, 국가사회, 더 나아가 세계사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AI도 '사회적 영혼'을 가질 수 있다는

"AI 연구자 가운데 의식에 관해 얘 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AI가 사람과 오래 관계하다 보면 인간 의 의식 세계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자 기 지능에 포함하는 쪽으로 전개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본인의 생각은.

"상당히 접근할 거라고 본다. AI가 아주 똑똑해지고 인간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물론 점점 지능의 위 계(hierarchy) 위로 올라갈 AI가 보편 적이고 평등한 영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기계는 경험 을 안 하지 않나. 인간의 얘기만 듣고,

(사회적) 경험이나 부딪힘 없이 지능으 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 구심이 있다."

-비슷해지겠지만 똑같지는 않을 거다? "그쪽이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 완 전히 문을 닫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 한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AI 의 텍스쳐(texture, 특성·방향성)도 바 뀌지 않을까. 어떤 사회가, 어떤 의식으

-AI가 인간에 따라 달라진다면 인간의 나쁜 점을 배울 수도 있지 않나.

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렸다."

"그게 핵심이다. 그러니 AI의 미래 를 우리 인간과 세계에 득이 되는 미래 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세계에 사는 인간들이, 전쟁·파괴를 극복하고 자기중심적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AI는 (인간을 통해) 배우는 기계니까. 우리가 먼저, 좀 더 열려 있고 좀 더 남 을 포용하는, 세계인이 돼야 한다."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AI를 (사회적 영혼이 있는) 인간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다. 선진주자는 아니지만 (AI 생태계) 하부구조에 참여하고 있고 이제 상부 구조에도 참여하려는 상황이다. (현재 AI 주도국처럼) 너무 방만하지도 너무 권력이 집중화돼 있지도 않다. 인간의 사회·정치적 삶에 대해 고민하고 (민 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역사도 갖고 있다."

이번 세계인문학포럼의 주제는 'AI 대전환의 시대의 인문학'이다. 세계 21개국 150여 명의 학자가 참가 예정 이다.

권 교수 외에 모로코 모하메드6세폴 리테크닉대(UM6P)의 모하메드 알리 벤마크루프 교수, 한국 태재대의 염재 호총장이 기조 강연을 한다.

김한별 기자

역시 '갓' 지디…SNS에 APEC 공연 올린 정상들

갓 닮은 중절모쓴 만찬 공연 장면 말레이시아총리등지디영상공유 좋아요 11만 "데려와달라" 댓글도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 무대가 각국 정상들의 호평 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현장에서 자신 의 휴대전화를 꺼내 공연 모습을 직접 촬영했던 정상들은 하루 뒤 이를 개인 SNS에 공유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 였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는 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말레 이시아의 많은 K팝 팬들이 오늘 밤 지 드래곤의 공연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 했다.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 의 공연 일부를 공유한다"면서 지드래 곤이 '드라마'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다.



지드래곤의 공연 영상을 올린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계정. '지드래곤을 데려와 달라'는 댓 글이 달렸다. [로렌스 웡 총리 인스타그램 캡처]

이 영상은 '좋아요'가 11만회를 넘기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지 네티즌 들은 "이건 아이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아빠 같다", "우리의 요청에 응해줘서 고맙다" 같은 댓글로 호응했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도 "APEC에 정책과 무역 협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 스타그램에 지드래곤 공연 영상을 올 렸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지드래곤을 싱가포르로 데려와주세요" 등의 댓글

을 달며 호응했다.

당일 현장에서 지드래곤의 공연을 지켜봤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알베 르토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장관, 아누 틴찬위라꾼 태국 총리의 배우자인 티 나논니라밋 여사 등도 휴대전화를 꺼 내 무대를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드래곤은 이날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 후 진행된 문화 공연 무대 에 올라 '파워', '드라마', '홈 스윗 홈' 등세 곡을 차례로 불렀다.

특히 지드래곤은 공연에서 진주 장 식 끈을 달아 한국 전통 갓을 연상시키 는 중절모를 써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애니 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사자보 이즈' 캐릭터를 떠올리게 했다는 반응 이 나왔다.

김은빈 기자

내년 김구 탄생 150년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

외교부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이 유네스코(UNESCO) 기념 해로 공식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유 네스코는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43차 총회에서 이처럼 결정했다.

유네스코는 회원국이 제안한 역사 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교육·과학·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 촉진과 평화 와 안보에의 기여라는 유네스코 목표. 가치에 부합하는 경우 기념해로 지정 한다. 유네스코 총회는 김구가 대한민 국임시정부 수반이자 한국 독립운동 의 핵심적 인물이었으며, 광복 이후 문 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주창했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 서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인 2012 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인 2021년 이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된 바 있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차이나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Periodontal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지과 메어팩스 T. 703-652-4265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703-844-0355 / www.gtax1.com **G·TAX**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GTAX Consulting Group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u>편법이 없</u>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챈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폿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동운·심우정 ┈특검, 공수처·검찰 전현직 수장 겨눈다

〈공수처장〉

해병특검, 오동운 피의자 첫 소환 오처장 '위증 감싸기' 의혹 부인

김건희특검은 '도이치 수사' 조준 심우정 · 용산 비화폰 통화에 집중

순직해병(특별검사 이명현)·김건희(특 별검사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 찰 전현직 지휘부를 향해 확대되고 있 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1일 직무유 기 혐의 피의자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첫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오 처 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송창 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무 마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 시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 호를 맡았던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 전 대

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 다"고 증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송 전 부장검 사가 위증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 공수처장은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통보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 를 받는다. 공수처법(제25조)은 "공수 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 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만으로 공수처법상 '범죄 혐의 발견' 요건을 충 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 역 시 특검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수사 과 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공수처가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것으 로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지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 병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낸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2일 피의자로 소환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소환조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일 순직해병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 조사 과정에 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 소화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 선 전에는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 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 보했다. 또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 법 국회 통과 직전엔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 사할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 했다고 한다.

김건희특검팀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 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과 결과가 적 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수사 팀을 꾸렸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 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 직 검찰 지휘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특 성을 감안해 검사를 제외한 변호사 출 신 특별수사관과 경찰 등으로 수사팀 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시 세조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직접증거

가 확인되지 않았고, 간접증거나 정황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서울고검 재수사 및 특검팀 수사에서 "도이치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이 발견되고, 지인 명의 차명계 좌까지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 황이 드러났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다수인과 공모했 고,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 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 소했다.

특검팀은 중앙지검 수사팀의 김 여 사 방문조사 10여 일 전인 지난해 7월 3 일과 무혐의 처분 직전인 지난해 10월 10~11일 심우정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내용을 재구 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 대통령실 차 원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할 단 서로보기 때문이다.

정진우·석경민 기자

어르신들이 도시락 만들고 배달, 더 건강해진 '전국 1위 장수마을'

"일하며 말 나누니,스트레스도 풀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손맛반찬 1호점'. 60세 이상 어르 신 30여 명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느 라 분주했다. 고흥군이 고흥시니어클 럽에 위탁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한 어르신들이었다. 음식 준비를 마친 어르신들은 도시락에 다섯 종류의 반 찬을 담았고, 한쪽에서는 배달팀 20여 명이 반찬통 뚜껑을 닫았다. 이후 배달 팀 어르신들은 반찬을 담은 보온 가방 을 각자 차량에 실은 뒤 "안전"이라고 외치며 배달처를 향해 출발했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점심시간 전까 지 일한 어르신들은 "일하니 몸도, 마 음도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 이덕 례(77·여)씨는 "집에서 혼자 아무것도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등에게 전해줄 도시락을 싸고 있다. 고흥=황희규기자

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오히려 더 골병 이 드는 것 같다"며 "식당에 나와 친구

들과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몸 관리도 더 하게 된 다"고말했다.

고흥 지역 어르신들이 만든 음식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과 아동, 다문 화가정 등으로 배달된다. 고흥손맛반 찬 1.2호점은 노인 522명, 아동 151명 등 에게 주 1~2회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

고흥군에 따르면 배달을 담당하는 어르신 중 95%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을 보유하고 있다. 도시락을 배달하면 서 음식을 받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 피거나 말벗이 돼 주는 경우도 많다. 지 난해 6월에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과 정에서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어르신 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구조한 사 례도 있었다. 고흥군은 전국에서 100 세 이상이 가장 많은 '장수마을'로 꼽 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 흥군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

구'는 74.9명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가장 많다. 2020년(65명)과 2023년 (78.3명) 등 최근 10년간 세 차례 전국 1 위를 기록했다. 고흥 지역 고령자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인 지원정책 덕 분에 장수마을이 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고흥군은 지역 내 공원·해수욕 장 환경 정비와 아동 귀갓길 지도·급식 보조, 경로식당 급식 지원 등 30여 개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고흥군은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관내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 전담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187억원을 투 입해 4949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 공했다"며 "어르신 일자리 및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고흥=황희규 기자

'의약분업 예외' 악용하는 약국들, 묻지마 조제에 배달까지

평소 디스크 탓에 허리가 아픈 A씨는 최근지인들에게 '유명하다'고 들은 강 화도 B약국을 찾았다. 약사는 처방전 이 없는데도 한 달치 약을 조제해 줬 다. 복약 지도는 없었다. 이 약이 떨어지 자 B약국에선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고 안내했다. A씨는 경기도의 집으로 한 달치 약을 배송받았다.

면(面)에 위치한 B약국은 의사 처방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이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대량 조제, 약 배 달 등 허가 범위를 넘어선 영업을 하고 있다. 디스크에 좋은 특별한 약이라고 홍보했지만, A씨가 받은 약 봉투엔 소 염진통·근육이완 성분의 전문의약품

이 중복으로 담겼다. 이 약을 본 현직 이다. 약사는 "과잉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B약국 같은 '묻지마 조제'가 일부의 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과 약국이 없거나 떨어진 읍. 면·도서 주민의 의약품 사용 불편을 해 소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셈

2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 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306곳이 다. 이들에게 잘못된 약 조제·판매 같 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 진 사례는 2021년 이후 32건이다. 적발

유형은 전문의약품 3일분 초과 조제, 처방전 없이 마약성분·전문의약품 판 매, 약택배 배송등이다.

문제는 이들 약국은 여전히 '약장사' 를 이어간다는 점이다. 앞서 영업정지 를 받은 경기도 C약국에 전문의약품 조제 여부를 문의하니 "원하는 날짜만 큼약을 내줄 수 있다"고 했다. 부산의 D약국은 "다음부턴 배달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종훈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여당,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 으로 추진

여당 "법원이 대통령 무죄 인정" 검찰에대국민사과·공소취소요구 야당 "주범이제 발저리는모습"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현직 대통 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 지케 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 명하고, 이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 화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 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 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 리 의혹 1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주요 피고인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지 이틀 만에 여 당이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 로 끌어올린 것이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 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 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 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정안 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 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 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 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재판중 지법과 법 왜곡죄 입법을 추진했다. 하 지만 대선 후 법원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스스로 중지하고, 이 대통령도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 하면서 본회의 처리 직전 멈춰 섰다.

재판중지법 처리 주장은 지난달 20

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 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한 이 후 당내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최근까 지 지도부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에 둔 사법개혁 논의의 무게 중 심을 유지해 왔었다.

우선순위 변경의 이유에 대해 원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무죄를 법원이 인정했는데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끊어내기 위해 국 정안정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무죄 인정'이란 인식은 2만 자가 넘는 1심 판결문 중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 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에 큰 의미를 부

여하며 도달한 결론이다. 친명 원외 조 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이날 "5인의 법 정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뒤집어썼던 업무상 배임 누명을 확실하게 벗겨줬다"고 논평했 다. 당내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 위원회는 전날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 치 기소로 누명을 씌운 검찰이 국민 앞 에 사과하고 공소를 취소하라"고 기자 회견했다.

야권에서는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특례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 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장동 판 결이 정말 이재명 무죄의 증거라면 재 판을 재개해도 어차피 무죄일 텐데, 황 급히 법안까지 만들려는 이유가 뭔가. 주범이 제 발 저리는 모습"이라며 이렇 게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 이스북에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 름을 붙여도, 그것은 법치주의를 형해

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 입법일 뿐"이라며 "본질이 '독재 시도' 인데 '유신(維新·낡은 제도나 관습, 정 치를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 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판결문 중 '유동규전 본부장 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있다. 송언석 국민 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12 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 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재판 재 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업 친화 입법' 명분으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방탄 입법" 이라는 주장에도 힘을 싣고 있다. 법조 인 출신 중진 의원은 "1심 유죄에 깜짝 놀란 민주당이 위인설법으로 이 대통 령에게 면소 판결을 안겨주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심새롬·김규태 기자



호남 시장 찾은 여, 수도권 단체장 모인 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전남 순천 재래시장인 아랫장을 방문해 한 시민 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 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한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728조 예산전쟁 시작…야당 "소비쿠폰은 마취제" 선제공격

국민의힘이 2일 정부·여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마취제"로 규정하며 이재 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공세에 나섰 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 로 정부가 지난 8월 제출한 728조원 규 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인 공방을 시작한다. 728조원은 전년 (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

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인천·경 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이 하 예정협)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라 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 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 대책"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종의 진통제 또는 마취제"라며 "단 기소비효과는볼수있으나민생경제 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거두기 어

렵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올해 703조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포함)의 집행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시장에 돈이 한꺼 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급등했다"고 날 을 세웠다. 이날 예정협에는 오세훈 서 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 지사 등이 참석했다.

오시장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서울 은 돈을 풀어서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

시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서울시민 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지 만 혜택은 15위에 머무르는 뚜렷한 역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정국의 가장 치열한 전선은 정 부·여당의 현금성 지원 사업이 될 전망 이다. 2026년도 예산안 728조원에는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예산 24조원이 포함돼 있 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2일 "지금

를 살릴 때"라며 "지역화폐는 절대 양 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 역구의 국민의힘 의원은 "접전 지역은 부동층 1~2%만 움직여도 선거에 큰 영 향인데, 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당연히 경계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전 코로나19 긴 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21대 총 선 전에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김 정책 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정부. 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면 국민 적 저항을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민·이찬규 기자

미국서 핵잠, 중국과 민생협력… '안미 경미중' 밑그림 나왔다

ⓒ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ve Exam

Cataract Laser Surgery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중간 연쇄 정상회담 등 이재명 정부의 '메가 외교 이벤트'가 마무리됐다.

미국과는 관세협상 타결에 더해 한 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중국과는 양자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으며 '민생' 위주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 제는 중국 의존)'의 시대는 지났다고 밝힌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안미경미

중외교'의 밑그림이 나온셈이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계 기로 난항을 겪던 관세협상을 타결하 면서 가장 큰 갈등 이슈가 일단락됐다. 또이 대통령은 공개 모두발언에서 "북 한과 중국쪽 잠수함 추적"을 필요성으

로 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이튿날 "한국의 핵잠 건 조를 승인했다. 필라델피아조선소에 서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 수 용했다.

실제 핵잠 도입까지는 현실석 난관 이 많고,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 도크다.

하지만 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건 한·미 동맹의 안보적 공고함을 방증하 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트럼프도 "한 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 졌다"고 밝혔다.

유지혜·정영교 기자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져 치료경력

>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

White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안구 건조중 치료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Dry Eyes Therapy



셀러미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팩션, 래드 인스팩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싱글 홈, 스프링필드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 화1

\$1,600

급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방2, 화 1, 아담한 뒷마당 챈틸리 as Is 급매

\$300,000 (임대 \$1,800)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帅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 **HXILIO**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김정은 동선까지 포착 … '킬체인의 눈' 더 정밀해졌다

날씨 나빠도 24시간 전천후 감시 독자적 정찰위성 '425사업' 마무리 "2030년까지 위성 60개 발사 목표"

한국군이 독자 정찰위성 5호기를 2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핵・미사 일 감시·정찰을 위한 '눈'(정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425사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할 '킬 체인(Kill Chain·선제 타격 체계)'의 눈 이 한층 정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425사업 의 마지막 주자인 5호기 위성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오후 2시 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9분) 미 우 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에 실려 발사됐다. 5호기는 발사 14분 뒤 인 오후 2시23분쯤 발사체와 분리돼 목 표 궤도에 안착했으며, 발사 후약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정찰 5호기는 앞서 발사된 2·3·4호기 와 같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또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이다. 레이더 반사파로 영상을 구현하기 때문에 주. 야간, 날씨와 관계없이 초고해상도 영 상을 촬영·전송할 수 있다. 안규백 국 방부 장관은 "5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 리 군은 킬체인의 핵심인 '더욱 정교하 고 밝은 눈'을 갖게 됐다"며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완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군의 중대형 위성 확보 사업인 425사업은 2017년 12월 본격 시작했 다. '425'란 사업 이름도 이들 위성의 영 문약자인 'SAR·EO'와 유사한 발음에 서 따온 것이다. 전자광학(EO)·적외선 (IR) 탑재 위성 1대(1호기)와 SAR 위 성 4대(2~5호기) 등총 5기를 쏘아올린

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장점을 극대 화하려는 취지다.

정찰위성 1호기는 2023년 12월 발사 돼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3호기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발사돼 올해 6월 과 7월에 각각 전력화됐다. 지난 4월에 발사한 4호기는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 을 기다리고 있다. 정찰위성 5기가 모 두 실전 배치되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능력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해상도가 30cm 수준(가로·세로 30㎝를 한 점으로 인식)인 SAR 위성 은 차량 종류와 사람의 움직임까지 특 정할 수 있다. 북한군의 핵심 기지는 물 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까지 들 여다볼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자산으 로꼽힌다.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 징후 임박 시 사전에 제압한다'는 구상의 군사 작전이다. 탐지(Find)→확인(Fix)→ 추적(Track)→조준(Target)→교전

(Engage)→평가(Assess) 등 6단계를 거친다.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 면 다시 탐지 단계로 간다. 그래서 파괴 (Kill)하는 순환 구조(Chain)이기 때 문에 킬체인이라고 불린다. 5개의 정찰 위성이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게 되 면서 군은 탐지에서 평가까지 30분 안 에 킬체인을 가동한다는 목표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군은 소형(500kg 이하)·초소형 위성 (100kg 미만)도 다수 확보한다는 계획 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소형위성 약 20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초소 형 정찰위성 40여 기 발사를 목표로 삼 고 있다. 해당 계획이 순조롭게 실시되 면 30분 간격으로 북한 전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한층 촘촘해진 감시망을 갖 추게 된다. 현재 발사된 정찰위성 5개 로는 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를 관찰할

이유정·심석용 기자

전민구 기자

트럼프 군사압박에 …베네수엘라, 러·중·이란에 'SOS'

트럼프 '마약단속' 항모 파견 추진 마두로 "미사일달라" 러등에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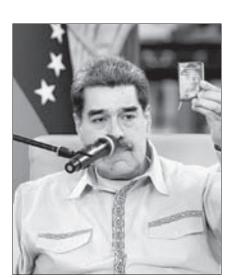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계속된 군사 압박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러시 아·중국·이란에 지원을 요청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 변인은 1일(현지시간) 논평을 내고 "미 국의 마약 단속 작전 과정에서의 과도 한 군사력 사용을 규탄한다"며 "이는 미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베 네수엘라 지도부가 국가 주권을 수호 하는 데 있어 우리의 확고한 지지를 확 인한다"고 덧붙였다.

사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 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 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통령에게 방공 레이더 장비와 러시아 제 수호이 전투기 수리를 요청하고 미 사일 지원을 타진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달 31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카리 브해에서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마 약수송의심 선박을 격침하는 군사 작 전을 진행해왔다. 마약 단속은 외피일 뿐 마두로 대통령 퇴진이 목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WP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시 해당 논평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군 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서한을 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카리브 해 14개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네수엘라 헌법 미니어처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내 '베네수엘라와 중국이 이념을 공유 하는 만큼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중국에 대한 공격과 같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군사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고 한다. 마두로 대통령이 이란에는 드 론 등 군사 장비를 요청했다고 WP는 전했다.

카리브해에 미군 병력이 집결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자 베네수엘라가 미 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국가에 도 움을 요청하며 활로를 찾는 모양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 해에 군함 8척, 특수작전함 1척, 핵추진 잠수함 1척 등을 파견했고 다음 주 항 공모함 1척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이다.



"K-APEC, 역대급성공" 흥분한 여…"빈손회담" 깎아내린 야

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이 "역대급 성공"이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에선 "빈 손회담"이라며 평가절하했다.

2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수많은 양자 회담과 복잡한 다자회의 모두를 걸출하게 성공시킨 이재명 대 통령님의 외교력과 지도력이 없었다면 (APEC 성공은) 불가능했다"며 "대통 령 정말 잘 뽑았다는 국민 말씀을 어제 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페 이스북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이 대통령의 외교를 'The Bridge(다 리)'라고 표현한 것을 인용하며 "변방 의 실력자던 대한민국이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를 잇는 다리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교두보가

여야가 1일 폐막한 APEC(아시아태평 만 해도 참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 돼 이재명이라는 다리, 대한민국이라 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해 엇갈 면서 "대한민국이 내란의 혼선을 넘어, 는 다리를 굳건히 받치는 발판의 역할 을 이어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대통 령의 APEC 외교성과, 엑설런트하다. Very Good!"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페이스북에 "트럼프는 부정 선거가 없 다고 했고, 시진핑은 대중문화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격은 높아지고 국 익은최대화됐다"고 썼다.

특히 민주당은 한・중 회담 성과를 언

급하는 데에 공을 들였다. 여당 중진 의 원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내수 활 성화,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경 제 협력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 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최보윤 수 석대변인)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 변인은 그러면서 "핵심 의제였던 한한 령, 희토류 공급망, 서해구조물, 북핵 대 응 등 어떤 현안에도 구체적 결과를 내 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는 이날 국민의힘 민생예산정책협의회 에서 "실속 없는 (한·중회담) 결과의 배 경에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한 미 회 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을 요청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함을 언급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고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대 변인은 "국민이 더는 '평화의 개꿈'에 안도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한·중 정상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는 천 번 말해도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며 조롱했음 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평화의 환상'에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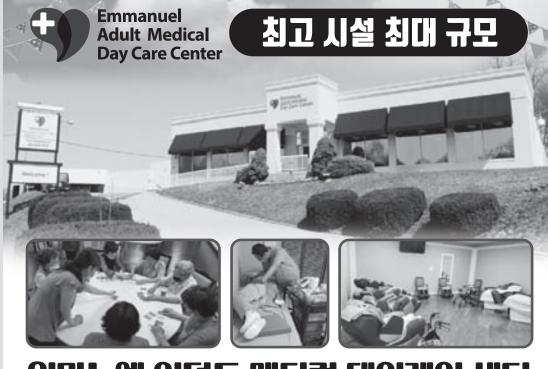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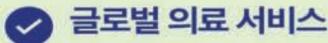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CMM 회원 혜택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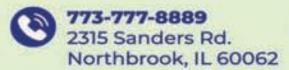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우리말 바루기

'싹둑'에 담긴 규정

가로수 수난 시대다.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에 가지를 싹둑 자르고, 거리를 정비한다며 함부로 베어 버리기 일쑤다.

가로수 수난사 못지않게 '싹둑'이란 단어 도 멋대로 표기될 때가 많다. "아파트 공사 장 주변 아름드리 가로수 수백 그루가 하루 아침에 싹뚝 베어져 밑동만 남았다"와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한다. '싹뚝'이란 말은 없다. 발음은 [싹뚝]이지만 '싹둑'으로써야 한다.

'싹둑'처럼 한 단어 안에서 된소리로 발 음될때소리나는대로표기해도되는지헷 갈릴 때가 종종 있다. 답은 한글맞춤법 제5 항에 나온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돼 있다. '가끔, 거 꾸로'처럼 앞말에 받침이 없는 두모음 사이 에서 나는 된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L, 己, ㅁ, o'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도마찬가지다. '잔뜩, 털썩 듬뿍, 몽땅' 등과 같이 발음하고 표기한다.

예외도 있다.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 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 다. 깍두기[깍뚜기], 시끌벅적[시끌벅쩍], 덥 석[덥썩], 법석[법썩]이 올바른 표기와 발 음이다.

5항에서 '한 단어'란 한 형태소로 이뤄진 단어를 뜻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편집국장 홍알벗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행복한 노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필자는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린다.

몇 년 전에 92세로 세상을 떠나신 필자의 어머 니는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하니?"를 생의 원 칙으로 삼으셨다. 갓 돌이 지난 필자를 품에 안고 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실 때, 육로는 북한 병사들 의 감시가 심해서 바다로 오셔야 했단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작은 배에 오르자, 선주 가 한마디를 던졌다. "그 애가 울기 시작하면 우 리 모두가 죽게 되니, 아이를 바다에 던지시오."

19세의 어머니가 한 살짜리 내게 어떤 말을 하 셨는지,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주셨었는지 모르 지만, 우리는 인천에 무사히 도착했다. 피난지 남 한에서 아버지가 말단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 안, 우리 가족은 2년마다 이사 다녔다. 그래도 어 머니가 힘드시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어 본적이 없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도 양식이 떨어진 먼 친 척을 위해서 무거운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서 산 동네에 가셔서 도와드렸다는 이야기를 어린 시절 에 여러 번 들었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시작한 후, 2학년이 되어 이사 간 목포의 산꼭대기 집에서는 유달산의 진 달래 꽃이 잘 보였다. 우리보다 더 위쪽에 사시던 아주머니는 자주 우리 집에 오셔서, 나랑 동생 인 숙이를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자상하게 도와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고 물으셨 단다. 생활에 지쳐 있던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를

오픈 업

나의 어머니 이야기



수잔 정 소아정신과 전문의

따라서라면 세상 끝까지도 가시고 싶었단다. 드디 어 그 친절한 아주머니를 따라서 간 곳은 작은 교 회당이었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들었던 찬송가 의 울림에 큰 감동을 느끼셨다고 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성경, 로마서 8장에 쓰인 '모든 것이 협 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구절을 자신의 좌 우명으로 삼으셨다.

남동생이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나, 아버지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에도 어머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을 이루는 데에 일익을 하리라 고 믿으셨다.

평양에서 멀지 않은 '개천'에서, 어머니는 유 복녀로 태어나셨다. 외할머니는 남편이 남기고 간 많은 빚을 갚느라 바쁘셔서 홍역에 걸린 막 내 딸을 열심히 돌볼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홍역 의 합병증으로 얻은 기관지염과 천식 때문에 어 머니는 일생을 고생하셨다. 미국으로 모셔온 후 폐 기능 검사를 한 결과는 심각했다. 정상인의 약 50~60%의 폐기능만이 남아 있었고, 왼쪽 허파 의 거의 반은 전혀 기능을 못하는 캄캄한 동굴 같 았다. 그런 상태에서도 어머니는 늘 미소를 지으

셨다. 이러한 건강 상태에도 어머니가 총명한 정 신을 유지하시며, 구십 이세가 되도록 사셨던 비 결을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로 본다.

먼저, 끊임없는 몸의 움직임 또는 활동이다. 딸 이 정신대에 끌려갈 것을 두려워하신 할머니가 17 세에 서둘러 시킨 결혼, 이듬해에 태어난 필자를 비롯한 네 명의 자녀를 길러내셨다. 까다로운 남 편과 육십 여년을 살아가시며, 어머니는 '죽으면 썩을 몸'으로 열심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 하셨다. 또 다른 비결은 넓고 아름다운 인간 관계 라고 본다. 노인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한국인, 외 국인에 상관없이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셔서 장 례식은 유엔 총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조문객들 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명상을 그치지 않으신 것 도 비결이다. 카이저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필자는 당직 날 새벽 두세 시에 응급실로 불려가 는 경우가 많았다. 마약을 한 젊은이가 정신 이상 을 일으켜서 오거나, 조울증 환자가 분노에 휩싸 여서 주먹으로 창문을 부수다가 동맥 파열로 응 급실로 오는 경우, 애인이 배반했다며 자살을 시 도했다가 구급 차로 실려 오는 경우 등등 이런 밤 이면, 필자는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믿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생명을 오래 지켜준 큰 힘은 그녀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 망이 가득한 삶의 태도였다고, 필자는 믿는다. 저 높은 곳에서 여전히 미소 짓고 계실 어머니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보내 드린다.

열린광장

단군의 얼, 한국 신앙의 뿌리

며칠 전 옛 사진첩을 꺼내 보다가 깜짝 놀랐다. 육군보병학교 장교 임관식 사진의 날짜가 '단기 4290년'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숫자를 보 니 자연스레 개천절이 떠올랐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하늘의 뜻으로 시작된 이 나라의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올 해는 단기 4358년이다.

단군신화는 언제 들어도 신비롭다. 하늘의 신 환인(桓因)이 세상을 다스릴 뜻을 품고, 아들 환 웅(桓雄)에게 천부인(天符印), 곧 하늘이 내린 세 개의 표지를 주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다. 환 웅은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에 신시(神市) 를 세우고 인간 세상을 열었다.

그 무렵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길 원했다. 하 늘은쑥한줌과마늘스무개를주며백일간햇빛 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일렀다. 곰은 이를 지켜 여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했 다. 여인이 된 곰은 신단수 아래서 남편이 나타나 길 기도했고, 환웅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



윤경중 목회학박사 연목회 창설위원

녀와 짝을 이루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군이다.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된 인 물이다. 고려시대 승려 일연이 『삼국유사』에 적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하늘의 뜻과 인간의 삶을 잇는 상징이다. 곰이든 여인이 든, 중요한 것은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작을 상징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얼은 본래 무교(巫敎, Shamanism)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 유교· 불교·기독교 등 외래 종교가 더해지며 정신적 토

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그 외래 종교들은 껍데기만 남은 경우가 많다. 유교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보다 삼 강오륜의 규범만 남았고, 불교는 해탈의 길이 아 니라 현실도피로 오해되었다. 기독교 또한 서구 식 형식주의와 자본주의적 윤리에 얽혀 한국적 얼과의 조화를 잃었다.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 고유의 '한울 님' 사상은 서로 닮아 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땅 에 비교적 쉽게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의 한국 교회에는 단군의 얼, 곧 하늘과 인간이 하나로 이어진 조화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웅장한 파이프오르간 소리와 학위 가운의 권 위속에 단군의 숨결은 들리지 않는다. 오늘의 신 앙이 진정한 한국의 신앙이 되려면, 다시 신시의 바람으로 돌아가야 한다. 환웅이 하늘의 뜻을 품 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그 정신인 하늘과 땅, 신과 사람을 잇는 '한울림'의 울림이 오늘 우리가 되찾 아야 할 단군의 얼이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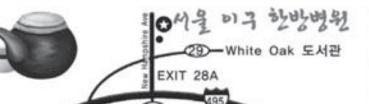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 ●회사설립/합병 ●국제합작투자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부동산 투자 개발

Business / Real Estate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703-973-8700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혼앞빌딩 3층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하나군 착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사고후유증 ☑ 손, 발통증 및 저림
- ☑ 척추디스크통증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목,허리통증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7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라빌 (301) 279-6960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라빌 (301) 279-6960

ASK미국 온·오프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 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최경규 이민/비자 변호사

Q 군인과 귀화 요건

▶문 = 이번 USCIS 발표에서 "Uncharacterized Discharge(구분불명제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2024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Uncharacterized Discharge(구분 불명제대)는 더 이상 "Under HonorableConditions(명예 조건에 따른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군인 귀화(INA § §328, 329)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못합니다.

이는 Department of War Instruction(DODI) 1332.14개정과일 치하며, 이제 입대 초기 제대를 명예 제 대와 명확히 구분합니다. 다만, 2024년 8월 1일 이전의 구분 불명 제대는 여전히 귀화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 해외에 거주하는 참전 외국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USCIS는 더 이상 CBP(세관국 경보호청)와 협력하여 국경 검문소에서 인터뷰나 선서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참전자 는 비자 또는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아 미 국에 입국한 뒤 귀화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 "Less Than Honorable Discharge(불명예 제대 이하)"를 받은 경우 대안은 있나요?

▶답= 예를 들어, COVID-19 백신 접종 불이행 등의 이유로 불명예 이하 제대를 받은 경우, 전쟁부에 DischargeCharacterization Change(제대 성격변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반드시 공식 제대 문서(DD-214 등)에 근거해 귀화 자격을 심사하며, 만약제대 성격이 Honorable 또는 General(Under Honorable Conditions)로 상향

조정된다면 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불리한 제대를 받은 지원자들에게도 재심과 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습니다.

이처럼 이번 발표는 귀화자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터뷰 절차를 미국 내로 일원화하며, 나아가 불리한 제대를 받은 이들에게는 제대 성격 변경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동 찬 이민/비자 변호사

Q H-1B 수수료 \$100,000로 인상

▶문= 저는 미국에서 STEM OPT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해야하는데,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비를 \$100,000로 인상했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와 관련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해 당 포고령에 따르면 고용주가 \$100, 000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025년 9월 21일(마감일) 이후에는 H-1B 신분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포고령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H-1B 청원서에 대해 청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USCIS가 심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발표 직후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 체류 중인 H-1B 근로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탑승한 H-1B 근로자들이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면서 비행기 이

륙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세관국경보호국 (CBP)과 이민국(USCIS)은 해당 포고 령을 설명하는 메모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CBP 메모에 따르면 \$100,000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USCIS 메모에는 포고령이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 원서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수 수료 적용 대상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CBP 메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유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100,000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USCIS 메모에 해외 체류자에 한정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100,000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포고령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1B 제도에 중대한 변화 를 가하는 것이므로, 향후 법원에서 위 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본준 변호사

Q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과 기소중지 재외국민 추방 문제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 국민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추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점도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저와 같은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할까요?

▶답= 미국이민 당국은 최근 불법 체류 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 니다. 단기 여행 목적으로 ESTA 승인을 받아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비자 없이 일을 하면 구금·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조지아주 현대차그 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급 습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기소중지 처 분을 받은 불법 체류자의 경우 더욱 심각 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검찰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자가 된 사람은 한 국에서는 수배 대상 피의자이고, 동시 에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로서 체포· 구류·추방 위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불법체류자가되는가장큰이유는신 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보유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권법」 제12조가 규정한 '기 소중지자의 여권 발급 거부' 조항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기소중지자 는 원칙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 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과 같은 경우, 먼저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 신청 등을 통해 해결

하고 이후 여권을 발급받은 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 가 직접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지 만,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입국 시 장기 간 재입국 금지(통상 10년)가 문제되므 로 현실적으로 입국 없이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때가능한 방법이 바로 재기 신청입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불법 체류 중이라면, 재기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면광고 △ 21

Alexandria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Deck, 건조기 및 세탁기



















돌 Woodbridge 타운홈

펜스가 있는 뒷마당, 3층 국







Manassas 타운 홈

방4, 화3 ½, 엔드 유닛 타운 하우스, 업데이트 한 부엌과 화장실들, 3층 모두 나무마루,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새 주방 용구들, 새 HVAC, Granite Countertop, 새 페인팅, 새 브라인드, 넓은 Deck와 F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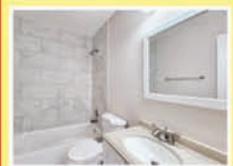














Alexandria

완전히 리모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di | = 54 Tel:703.813.8949, 703.813.8150~5

Sung Hwang&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DC,VA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MARYLAND

OFFICE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Thuman manual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 /휴직 보상소해배상
- 민사소송
- 비지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지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폴 킴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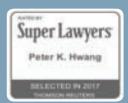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 약력

Eccleston & Wolf

Sung Hwang&Kim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①중앙일보 JoongAng Ilbo

Monday, November 3, 2025 C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LENNOX) TRANS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Carrier, Lennox 전문딜러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703-333-2005 301-230-3122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N. Bethesda, MD 20852

9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3.0%↑

근원물가 상승률은 소폭 둔화 기준 금리 하향에 단초 되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들어 3%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 월 대비 소폭 둔화한 데다 이날 발표된 지표 모두 전문가 예상치에 못 미쳐 시 장을 안도하게 했다.

노동부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고 지 난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전년 동 월대비 2.9% 상승)에 비해 소폭 오른 상 승률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4월 2.3%로까지 둔화했다가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전월 대비 로는 0.3%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올라 8월(3.1%)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전 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 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모두 밑돌았다. 대표지수와 근원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과 전월 대비 상승률 모두 전망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았지만 물가는 여전히 예측 불허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콜로라도주 아바다의 식품점인 커뮤니티 테이블 푸드 팬트리에서 한 남성이 식료품과 화장지를 카트에 담고 있다.

치를 각각 0.1%포인트 밑돌았다.

이날 물가지표는 당초 10월 15일 발 표가 예정됐으나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탓에 이날로 지연돼 발표됐다.

노동통계국은 셧다운 개시 이후 경 제통계 산출 관련 업무를 일시 중단했 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사회보장국의 내년도 연금 지급액 산출에 필수적이 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적용했다.

다만 소비자물가와 함께 노동통계국 이 산출하는 핵심 통계 중 하나로 꼽히 는 비농업 고용지표는 셧다운 사태 이 후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제도(연준)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 28~29일을 앞두고 중요한물가통계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 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 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 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10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 트인하할확률을 98.9%로 반영하고 있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여파로 미국의 물가 상승 률이 연준의 목표 수준(2%)을 여전히 웃돌고 있지만, 연준이 당분간 노동시 장 약화에 더 무게 중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공개연 설에서 "덜 역동적이고 다소 약한 노동 시장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이 증가해온 것처럼 보인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 을 밑돌면서 금융시장도 안도하는 분위 기다. 이날 뉴욕증시 개장 전 S&P 500 지수선물은 오전 9시 15분 기준 전장 대 비 0.6% 상승 거래됐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 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 익률은 같은 시간 3.47%로 전장 대비 2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AI가 삶에 도움 될 것"…25%만 긍정적

AP-NORC 여론조사 전력・일자리 잠식 등 우려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 한 미국인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 로나타났다.

AP통신이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 (NORC)과 함께 국내 성인 3154명을 대 상으로 지난달 2~18일 실시한 여론조

사에 따르면 'AI가 개인에게 도움이 될 지 해가 될지'에 대한 질문에 약 2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난 22 일 보도했다. 또 AI가 자신에게 해를 끼 칠 것이란 응답도 거의 같은 비율로 나 타났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내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거

캘리포니아에 사는 24세 민주당 지

나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자 어맨다 에르난데스는 "AI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계산원이나 서 비스 직원이 필요 없어질까 봐 걱정된다 "고 말했다.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블랙박스 같다"며 "앞으로 어 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전혀 모르겠다" 고답했다

AI가 향후 10년간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으로는 도움이 되기보 다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AP는 전했다.

특히 AI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응답

자의 약 40%가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가상화폐 채굴이나 육 류 생산, 항공 산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 해 우려를 표한 미국인 비율보다 높은 수치라고 AP는 전했다.

뉴욕의 26세 민주당 지지자 에이든 콜린스는 AI가 "터무니없는 양"의 에 너지를 사용한다고 지적하며 "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기후 변화에 악영 향을 끼친다는 점이 내게는 정말 끔찍 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Annandale, VA 22003



연말 파티에 200명 초대 합니다. 품짐한 상품 및 1000불 상금 12월 6일 토요일 6시 **Pine Plaza** 7 Broad Ave 4^{fl}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917.359.1578



FAX 301-770-4711





Washington, D.C. 20037

백악관 28세 대변인도 IMF 총재도 "K뷰티, APEC 홀렸다



위상 높아지는 K뷰티

레빗, 황리단길 올리브영서 쇼핑 APEC 기간 여는 'K뷰티 파빌리온' 수행원 데리고 고위급 인사도 방문 아모레퍼시픽 등 체험 부스 줄이어

K뷰티의 인기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증명됐 다. 미국 백악관의 최연소 대변인인 캐 롤라인 레빗(28)이 K뷰티 제품 구매 인 증샷을 올렸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 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K 뷰티 체험부스를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레빗 백악관 대변 인은 29일 소셜미디어(SNS)에 K뷰 티 제품 13개를 나란히 둔 사진과 함 께 '한국 스킨케어 추천템들(South Korea skincare finds)'이란 문구를 남 겨 눈길을 끌었다. 레빗 대변인은 경주 황리단길(황남동)을 들러 올리브영 매 장에서 K뷰티 제품을 구매했다. 또 디 저트 카페도 찾아 간식을 즐겼으며, 한







1.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29일 올리브영 황남점 앞에서 포착된 모습. 2.30일 LG생활건강 체험부스를 찾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 통화기금(IMF) 총재. 3.아모레퍼시픽 부스에서 K-뷰티 체험을 하고 있는 방문객들의 모습. [사진 유튜브, LG생활건강, 뉴스1]

국인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눴다.

30일 올리브영 관계자는 "레빗 대변 인이 전날 오후 경주황남점을 찾아 뷰 티 제품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매장에서 20여분 간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제품들을 빠 르게 골랐고 영어를 구사하는 매장 직

한·미 기준금리

원이 쇼핑을 도왔다고 알려졌다.

올리브영 경주황남점은 경주의 대표 적인 관광 명소인 황리단길에 위치해 있고, 한옥 형태로 지어져 외국인들에 게 인기를 얻고 있다. 올리브영에 따르 면 경주황남점의 전체 매출에서 외국 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20%

에서 지난 29일 63%로 급증했다. 올리 브영측은 "APEC 개막 후 수행원과 함 께 매장을 찾는 인사들이 많이 눈에 띈 다"고 전했다.

경주 황룡원에선 28~31일 K뷰티 체 험이 가능한 'K뷰티 파빌리온'이 운영 되고 있다. 이곳엔 APEC에 참석한 해

외 최고위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의 최 고경영자(CEO), 배우자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LG생활건강 체험부스 에선 브랜드 '더후'의 최고급 제품인 환 유고를 직접 발라볼 수 있다. 또 전통 노리개를 만들어 볼 수 있고, LG생활 건강의 뷰티 제품들도 무료 증정된다. 30일 오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이곳을 방문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체험부스 예 약이 매일 빠르게 꽉 찰 뿐 아니라 워 크인으로도 많은 이들이 오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방문해 '일본에서도 K뷰티의 인기가 높아 평소 관심이 많았는데 제품을 직접 발라볼 수있어좋다'며감탄했다"고말했다.

아모레퍼시픽 부스에선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방문객들의 피부색과 맞는 화장품을 현장에서 제조해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임원들의 배우자 등은 이런 기술 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 다.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이번 APEC을 계기로 K뷰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미 2개월 연속 금리 인하…파월 "12월 인하는 확정 안돼"

10월 29일

(0.25%p↓) 4.00

2.50

10월 23일

1.50%p 격차 3.0

1.0



Fed, 금리 0.25%P 인하

물가 상승보다 고용 둔화에 주목 12월엔 양적긴축 3년 반만에 종료 Fed 내부선 동결 소수 의견 나와 한은, 집값 부담 여전해 셈법 복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9일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이어 두 달 연속 '인하'다. 이로 써 미국 기준금리는 연 3.75~4%로 한 국(연 2.5%)과의 금리 격차는 상단 기 준 1.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달 Fed가 인하를 결정한 것은 인 플레이션(물가 상승)보다 고용 둔화에 더 주목하면서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은 수요와 공 급 둔화로 점진적으로 냉각됐으며 실

자료: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물가는 여 전히 높지만,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이와 함께 Fed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QT)을 종료한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정책 수단인데, 이로써 2022년 6월 부터 이어진 Fed의 추가적인 '돈줄 죄 기'는 3년 반 만에 마무리된다.

하지만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할지는 불투명하다. 결

자 회견에서 "(올해 마지막) 12월 회의 의 추가 금리 인하는 전혀 확정된 것이 Fed의 목표 수준(2%)에 근접했다고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세 영향에 따 른 인플레이션 불씨가 여전해서다. 지 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대 비)은 3%로 1월(3.1%) 이후 8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다.

Fed 내부서 '동결 소수' 의견이 등장 려운 이유다.

데 두 명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

사'인 스티브 마이런 이사가 '빅컷(기 문이다. 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주장했고, 제프리 슈미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 은행 총재는 오히려 '동결'을 강조했다. JP모건은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은 다 소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매파(긴축) 다. 신호였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다. 시카고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Fed 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한국 시 간 30일 오후 4시 기준 70.4%로 치솟았 다. 심지어 하루 전 90%에 달했던 인하 확률은 0%로 수직 낙하했다. 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0.096%포인트 상승해 4%대로 올라섰다.

다음 달 27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했다는 점도 금리 경로를 예상하긴 어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일단 금리 인하 여력은 커졌다. 미국의 2연 이날 투표권을 가진 12명 위원 가운 속 금리 인하로 한 미간 금리 격차는 줄고,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외 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

남은 변수는 서울 집값 상승세다. 이 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한은 입장에 선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 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선 한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 장 예상을 웃돌자 경기 부양을 위한 금 리 인하 명분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수 회복세가 뚜렷해 금리 동결 기 조가이어질수있다"고전망했다.

한편, 일본은행(BOJ)은 30일 기준금 리들 0.5%로 유지했다.

올해 1월 한 차례 인상한 후 6회 연속 동결이다. '확대재정'을 내세운 다카이 치 새 내각과 정책을 조율하는 동시에 미국의 관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시간을 두고 점검하겠다는 의도 로풀이된다.

염지현 기자









4조 달러 돌파 110일만에 새 기록 AI 생태계 완벽히 구축, 성장 가팔라 젠슨황, 잡스와 다른 탁월한 협상가 직접 로비 나서며 트럼프 마음 얻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영 국 국빈 방문 중,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와 대화하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말했 다.

"젠슨, 당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 아, 난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 르겠어. 다만 우리 둘 다 당신이 맞기를 바랄뿐이지."

그 자리에 동석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향해서였다. '인공 지능(AI)의 록스타'에 이끌려 수조 원 을 투자 중인 전 세계 경영자들의 심정 도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세 계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약 7100조 원)를 돌파했다. 이날 미국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2.99% 오른 207.04달러로 마쳤고, 시총은 5억3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기술 생태계를 장악한 엔비디아의 압 도적 지위, 창업자의 열광적 인기 등은 '모바일의 제왕' 애플과 비견된다. 그러 나 엔비디아는 애플이 달성한 주요 기록 을 보다 빠르게 달성하고 있다. 애플 시 총이 1조→4조 달러(2025년 10월)가 되 는 데에는 7년 2개월이 걸렸다. 엔비디

엔비디아 시총 5조 달러 애플도 못 넘은 신기록



이는 기술과 자본이 온통 엔비디 아로 쏠린 현실을 반영한다. 29일 뉴 욕타임스(NYT)는 하버드대 경제 정책학 제이슨 퍼먼 교수를 인용해 "엔비디아 칩으로 꽉 찬 데이터센터 에 대한 지출이 올 상반기 미국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의 92%를 차지 했고, 이게 없었다면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쳤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술 제국을 감싸는 건 생태계로

러 싼 해 자 (moat, 방어용 인공 연 못)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 스는아이폰·맥북·아이패드등기기 와 앱스토어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했고, 후임자 팀 쿡 CEO는 이 를 워치·이어팟 같은 웨어러블 기기 와 아이클라우드 등 구독 서비스로 살찌웠다.

비디아는 해자를 더 깊게 파 고 있다. 2007년 GPU를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소프

트웨어 플랫폼 쿠다(CUDA)를 대 학·연구소에 무상 배포해 AI 연구 조자를 길들였고, 2019년 멜라녹스 인수로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을 확 보했다. 지난 2~3년 간은 AI 모델 이 GPU에서 잘 구동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SW) 스타트업을 왕성 하게 인수했다. AI 기술의 흐름에 맞는 신제품을 엔비디아가 가장 먼 저 내는 비결이다.

또황 CEO는 '괴팍하고 까다로 운 천재'로 불렸던 스티브 잡스와 달리, 사람의 마음을 잘 얻는 협상 가로 알려져 있다. 29일 워싱턴포 스트는 그를 "트럼프 대통령이 귀 를 기울이게 만든, 예상 밖의 인물" 이라고 평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 고 중국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대 통령과 정반대 주장을 하면서도 대 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 다. 한 빅테크 업계 전직 임원은 중 앙일보에 "황 CEO가 백악관에서 '미국 반도체 제조 부흥'을 엔비디 아가 어떻게 주도할지 브리핑했고, 대통령이 크게 만족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라고 말했다.

직원을 잘 해고하지 않으며 설 명절 때는 중국·대만 지사를 방문 하고, 두 자녀가 모두 엔비디아에 재직하는 것도 여타 미국 기업 방 식과는 다르다. 특히 제품 마케팅 을 맡은 딸은 주요 경영 전략을 결 정하는 그룹에 포함돼, 유력한 후 계자로 꼽힌다.

심서현 기자

'최대 매출' 빅테크 3사, AI 신사업에 수익 쏟아붓는다



구글·MS·메타 호실적

구글·MS 100조원대, 메타 73조원 클라우드·광고 사업 등이 실적 견인 핵심사업 성장에도 AI사업은 적자

구글(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플랫폼스(메타) 등 미국 빅테크 든주요부문에서 두자리 수성장을보 기업들이 나란히 역대 최대 매출을 기 록했다. 클라우드, 검색 광고 등 기존 핵심 사업이 매출 성장을 견인한 가운 데, AI 인프라 등 신성장 산업에 막대 한 투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29일(현지시간) IT업계에 따르면 구

글·MS·메타는 3분기(7~9월) 사상 최 대 분기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글은 3분기 1023억 달러(약 146 조원) 매출을 기록했는데 광고와 클라 우드 부문이 성장을 견인했다. 구글 검 색・유튜브 광고 매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씩 성장했고, 클라우드 부문 "내년 신사업투자 눈에 띄게 커질 것"은 같은 기간 34% 증가한 152억 달러 (약 22조원) 매출을 올렸다. 순다 피차 이 구글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모 이며 알파벳에는 훌륭한 분기였다"고 평가했다.

> MS도 클라우드 사업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클라우드 부문에서 MS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380억 달 러(약 54조원)를 벌어들였다. 전체 매

출도 같은 기간 18% 증가한 777억 달러 (약 111조원)를 기록했다.

메타는 같은 기간 512억 달러(약 73 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 비 2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일시적인 세금 지출로 순이익은 27억 달러(약 4 조원)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에서 시행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안' 영향으로 법인세 충당금이 149억 3000만 달러(21조원)로 늘어난 탓이다. 수잔리 메타최고재무책임자(CFO)는 "메신저 앱들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메타 AI와 스레드에서 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들이 지난 분기 사상 최대 매 출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아직까지 적 자를 보고 있는 신사업, AI 인프라 지 출은 향후 사업의 변수로 남아 있다. 일 부 신사업 분야 매출은 지지부진한 상 황이다. 구글은 자율주행차 웨이모 등 사업군이 포함된 기타 사업 부문에서 14억 3000만 달러 영업 적자를 기록했 다. 메타도 AI 안경, 메타버스 사업 등 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수 입보다 지출이 10배 더 많아. 약 44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빅테크들은 기존 주력 사업분야에 서 벌어들인 수익을 AI 인프라에 쏟 아붓고 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 는 콘퍼런스 콜에서 "AI 시대 전례 없 는 규모로 데이터 센터 용량을 추가하 고 있다"며 "올해 AI 용량을 80% 늘리 고, 향후 2년 동안 데이터 센터 규모를 약두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

잔리 메타 CFO는 "2026년 지출 규모 가 올해보다 눈에 띄게 클 것으로 예상 된다"며 "초지능 연구소 관련 지출 규 모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 다. 메타는 인프라 투자 외에도 수퍼인 텔리전스(초지능) 랩 등 AI 인력 채용 으로 인력 비용이 8% 증가했다. 구글 도 910억~930억 달러를 인프라 투자에 지출할 것이라 밝혔다.

매줄과 영업이익 모누 좋았던 구글 은 장내외 시장에서 모두 주가가 올랐 다. 하지만 MS는 한주 전 클라우드 애 저 오류 발생에 이어 29일 다시 한 번 발 생한 오류 등으로 장외에서 주가가 일 시적으로 3% 가량 내렸다. 메타는 급 감한 순이익 영향 등으로 장외에서 주 가가 7% 가량 하락했다. 김민정 기자



NMLS #: 2425871

융자가능한주

- * 버지니아
- * 델라웨어 * 알라바마
- * 메릴랜드 * 워싱턴 DC
 - * 플로리다 * 테네시
- * 뉴저지 * 조지아
 - * 미시간
- *웨스트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 노스 캐롤라이나 * 펜실베니아
- * 사우스 캐롤라이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 일반 융자
- → 정부 융자
- → 군인 융자
- → 재융자
- → 캐쉬 아웃 융자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 최소 다운페이
- → 최소 크레딧 점수
-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 Low Closing Costs
- → Same Day Pre-approval
- → 14 Days Closing Possible





Bryan Park 703-727-9730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Shane Lee 703-899-8876 slee@umnloan.com









부동산 스케치 / LA 부동산의 하락, 구조적 개혁 필요

구매 여건 아직 안좋지만 변화 조짐 내년 상반기 3~4% 가격 하락 예상

LA 부동산 시장이 10여 년 만에 새로 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팬데믹 이후 가 파르게 치솟던 주택 가격이 올해 들어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CAR)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LA 카운티의 평균 단독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9% 낮아진 약 86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로, 수년간 과열됐던 시장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장의 겉모습과 달리 실질적인 구매 여건은 여전히 악화된 상태다.

2021년 3% 미만이던 30년 고정 모 기지 금리는 현재 약 7% 수준으로, 같 은 집이라도 3년 전보다 월 상환금이 40~50% 이상 높아졌다. 예를 들어 중 간가 85만 달러 주택을 20% 다운페이 로구입할 경우, 월모기지 상환금은 약5600달러에 달한다. 이는 연소득이 20만 달러 수준인 가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통계상으로는 가격 하락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살 수있는 인구 층은 거의 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공급 부족이다.

UCLA 공공정책대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약5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인구유출이 일부 발생했음에도 가구 수증가율이 유지되면서 공급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신규 착공 건수는 2021년 2만7000호에서 2025년 약 1만9000호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30% 가까운 감소폭이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토지비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한 인허가절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이든모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

예를 들어 한때 젊은 세대의 '입문 시장'으로 인기가 높았던 에코피크의 상황은 지금의 LA 시장을 그대로 보여 준다. 2020년 당시 75만 달러였던 이 지 역의 단독주택 중간가는 현재 110만 달 러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45% 이 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세 역시 꾸 준히 오르며 1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2800달러를 넘어섰다. 즉, 구매도 어렵 고, 임대도 비싸다. 정부는 2024년부터 'Housing Element Implementation Program'을 도입해 용적률 완화, 부속 세대(ADU) 인센티브, 저소득층 주택 기금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ADU 허가 건수는 지난해 5200건에서 올해 4600건으로 줄었고, 저소득층 대상 신규 분양 물량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 평균 인허가처리 기간 역시 여전히 32개월에 달한다. CBRE는 보고서에서 "정책 방향은 옳지만 실행 속도가 너무 느려 시장의 변동성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LA 시장이 완만한 조정 국면을 이어갈 것 으로 전망한다. UCLA 경제연구소는 2026년 상반기까지 평균 주택가격이 추가로 3~4%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금리가 6%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구매 회복이 어렵다고 분석한다. 현재 LA의 평균 가구소득 대비 주택 구입비용 비율은 9.2 배로, 샌프란시스코(8.6배), 시애틀(7.9배)보다도 높다.

결국 지금의 LA 부동산 시장은 모 순적이다.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줄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거 접근성이 낮다. 이는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문제 가 아니라 공급 구조, 제도, 행정 절차 의 복합적 불균형 때문이다.

중산층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도심은 고소득층과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곧바로 도시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 는 것이다.

은퇴 준비 / 노후준비의 타이밍

연금 액수만큼이나 시기도 중요 '두 번째 연금' 은 선택 아닌 필수

"소셜연금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내 연금플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는 단순한 계산 이상의 타이밍의 중요성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소셜연금 수령 나이에 관한 용어를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조기수급(Early Eligibility Age)은 최소수급(Minimum Benefit Age)으로, 완전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은 표준수급(Standard Benefit Age)으로, 그리고 연기은퇴(Delayed Retirement Age)는 최대수급(Maximum Benefit Age)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뜻보면 단순한 명칭 변경처럼 보이지만,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용어인 조기수급은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평생 수령액이 약 30%나 줄어드는 손해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최소수급이라는 표현은 최소 한의 금액만 받게 된다는 인식으로 연 금 청구 시기의 중요성을 더 명확히 전 달합니다. 즉,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 느냐에 따라 평생 연금수령 총액이 수 십만 달러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셜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두 번째 연금이 필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 중인 은퇴연 령을 높이자는 이슈를 감안하면, 앞 으로 은퇴정년이 늦춰질 가능성이 큽 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은퇴정년 기준 인 67세에서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셜연금만으 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보 험사의 평생 인컴 어뉴이티(Lifetime Income Annuity) 입니다. 일명 '개인 형 평생연금'으로 불리는 이 플랜은, 소 셜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 액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인 연금



라이언 우 블루앵커 재정보험

플랜입니다. 다만, 국가가 아닌 보험회 사가 지급을 보장하고, 수령 시기와 금 액을 본인이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습니다.

소셜연금은 노후재정 안정의 기초이 지만, 그 위에 평생 인컴을 만들수 있는 개인 연금플랜을 더한다면 누구나 은 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미국은 꾸준한 금리 상승기를 이어왔습니다. 이 시기를 통 해 인컴 어뉴이티의 조건도 크게 향상 되어서, 평생 지급금액을 정해주는 인 컴 베이스의 Roll-up Rate이 무려 연 10%에 달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조 건으로 어뉴이티를 준비해두면 향후 인컴수령 개시 시점에서 10년안에 원 금 이상의 수령이 가능할 정도로 수익 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로 65세에 25만 달러를 어뉴이티에 예치하고 5년 뒤(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년 \$29,874(월 \$2,489)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뒤(75세)로 연금수령을 좀 더 미루면, 연간 \$46,309(월 \$3,859)으로 늘어납니다.(2025년 10월21일기준)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모든 수익구조가 현재의 금리를 기반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이예고한 대로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이 Roll-up Rate과 Payout Rate(연금지급률)이함께 낮아지면서 지금과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받을 수 있는 평생인컵이크게 줄어들게됩니다.

해 인컴 어뉴이티의 조건도 크게 향상 또 하나 주목할 점은 Premium 되어서, 평생 지급금액을 정해주는 인 Bonus(프리미엄 보너스) 제도입니다.

이전에 보유한 어뉴이티 플랜을 새로 운 조건의 계약으로 옮길 때, 옮겨오는 금액의 최대 10~25%를 일시불 보너스 로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 계약한 연금 어뉴이티를 지금의 좋은 조건의 계약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이전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써렌더 차지(Surrender Charge)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가입해 놓은 어뉴이 티가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전 문가를 통해 리뷰를 받아보는 것이 현 명합니다.

현재의 어뉴이티 시장은 좋은 조건 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 가입한 연 금플랜과 지금의 조건을 비교해 보면 평생 지급액의 차이가 30~40% 이상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유리한 상황은 금리하락이 본격화되면, 곧 사 라질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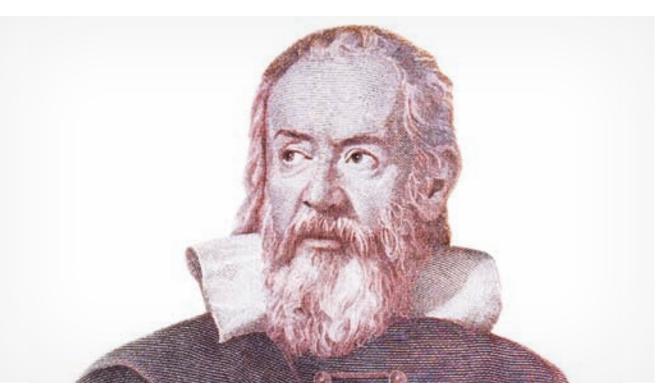


절대주의 궁정에서 과학자 갈릴레오가 벌인 사회적 게임

이른바 '갈릴레오 재판'을 널리 회자하 는 일화로 끌어 올린 것은 19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의 개신교도 과학자들이 었다. 그들은 자명한 진리를 억압하는 가톨릭이란 이미지를 부각시켜, 과학 과 개신교가 서로 적대할 이유가 없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했다. 그런 시도는 역효과를 낳은 것 같다. 편협한 논쟁들이 촉발됐고, 과학 전체와 모든 종교 사이의 관계를 몇몇 일화에 근거 해 단정하는 투박한 유습이 끈질기게 남아 있다.

지금까지 과학사 연구 성과들을 종 합하면, '갖가지 과학 연구 중 몇몇이 특정 시기에 한 종교의 일부 종파에서 지원을 얻어내거나 갈등을 겪기도 한 다'가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최대 치인 듯싶다. 그럼 갈릴레오 재판은 무 엇이었을까? 20세기 후반 대두한 견해 를 흥미 본위로 요약하면, 일종의 개인 적인 사고(事故)였다. 갈릴레오는 각 종 수사학적 기교를 동원해 창의적이 고 발랄하게 태양중심설을 성공적으 로 옹호했다. 그런데 나름 절친인 교황 우르바노 8세의 허락으로 1632년에 쓴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가 자칫 교 황을 우둔하다고 모욕하는 것으로 풀 이될 여지가 있었고, 교회 내 반교황 파 벌들이 이를 부채질했다. 교황 개인의 배신감과 분노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미국 과학사학자 마리오 비아졸리 의 1993년 『궁정인 갈릴레오』(원제 Galileo, Courtier) 출간은 갈릴레오 재판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었다. 국내에 처음 번역된 이 책은 갈릴레오 재판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음을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의 초상화. 이탈리아에서 1983년 발행된 2000리라 지폐에 그려진 모습이다.

여주었다.

[GettylmagesBank]

17세기 메디치 가문과 교황청 권력·후원·위신의 체계 속에서 새 지식이 정당성 얻는 과정과 총애받던 지식인의 몰락 조명

궁정인 갈릴레오

박초월 옮김

소요서가

마리오 비아졸리 지음

절대주의 시대 유럽의 사회문화는 군주와 봉신 관계 대신 군주와 총신의 관계로 중심이 옮겨졌다. 총신의 지위 와 권력은 군주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고, 궁정인들은 군주의 총애를 다 투었다. 예술가, 문필가, 학자들도 궁정 을 구성하는 총신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었고 또한 그럼으로써 본격적인 궁 정문화가 번성했다. 군주가 총신을 숙 청하는 일은 자주 일어났고, 필수적이 기도 했다. 그래야 다른 궁정인들도 지

함축하는 동시에 갈릴레오가 사회문

화적 밑천을 활용해 새로운 과학을 창

출하던 모습을 보여준다. 나아가 새로

운 지식이 당대의 사회관계 속에서 어

떻게 정당성을 직조·확보하는지도 보

위 상승을 위해 새로이 더 충성하기 때 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갈릴레오는 메디치 가문과 교황청 궁정이 만들어낸 권력・ 후원·위신의 체계 속에서 활동하면서, 학문보다 기예로 취급되던 비천한 수 학의 지위를 자연철학에 버금하는 지 위로 끌어올렸다. 나아가 수학을 자연 철학의 토대로까지 정초하고자 했다. 또한 자연과 인위의 엄격한 구별에 구 멍을 내어 망원경과 같은 인위적 도구 를 사용한 결과, 즉 인위에 오염된 자연 도 자연철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인위 를 가해야 자연의 숨겨진 본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는 데까지 나아갔다.

『궁정인 갈릴레오』는 현대에 '갈릴 레오 위성'이라 불리는 목성의 네 위성

을 '메디치별'로 명명하고 메디치 가문 에 헌정한 1610년부터 1633년의 갈릴레 오 재판까지에 집중한다. 갈릴레오가 메디치 가문에 헌정한 행위는 단순한 아부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지식 생산과 사회적 정당화가 맞물린 정교 하고 복합적인 행위였다. 이는 후원자 에게 '신뢰와 위신'을 제공하는 궁정적 공연이었고, 갈릴레오는 피렌체 궁정 의 자연철학자라는 총애를 획득했다.

책의 중후반부는 그가 로마 교황청 궁정 내 경쟁 속에서 위신을 확보 유지 하기 위해 얼마나 세밀히 '이미지 정치' 를 수행했는지 보여준다. 후원자·학자· 성직자들이 주고받는 사회적 게임이었 다는 점에서, 과학적 논쟁과 궁정의 위 계질서가 한 몸처럼 작동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갈릴레오의 실수나 잘못 인 주장들이 나름 궁정인으로서의 에 티켓과 암묵적 규칙을 따른 행위이기 도 했음도 보여준다. 군주의 위신와 궁 정의 활기를 위한 공연으로서 논쟁은, 수사학적 참신함을 포함해 흥미로워야 하지만, 명백하고 일방적으로 승리해 버리는 것은 금기였다. 군주의 권위를 침해하기 때문. 이런 면에서 비아졸리 의 갈릴레오는 성공을 거듭한 끝에 예 정된 몰락을 겪는 그리스 비극의 주인 공으로도 보인다.

비아졸리의 연구는 사회변화와 맞 물려 새로운 부류의 지식이 권위와 정 당성을 획득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영 감을 준다. 미국 UCLA 교수를 지낸 그 는 올해 69세로 작고했다. 역사학을 넘 어 연구진실성, 지적재산권, AI의 저작 권 문제 등 그가 연구해온 폭넓은 분야 에서 추도가 이어졌다.

이관수 과학저술가

샐러리맨의 신화 그의 '적자생존' 뜻



당신이 잘되길 바랍니다 권영수 지음 쌤앤파커스

직장인은 누구나 가슴 속에 사직서 한 장쯤은 품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인사이 동이 못마땅하거나. 상사와의 불화나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이놈의 회사 내 가 때려치우고 만다'는 생각이 들기 때

문. 하지만 평사원으로 시작해 LG디 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 LG에 너지솔루션까지 4개 기업 CEO를 역임 하며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권영 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현 상 근고문) 역시 그런 생각을 수차례 가졌 다는 건사뭇놀라운 일이다.

신간 『당신이 잘되길 바랍니다』에는 그가 가슴 속 사표를 만지작거린 수차 례의 순간이 등장한다. 첫 번째 사표 위 기는 출근해 보니 자리가 사라졌던 해 외투자실장 시절. 그의 이탈리아 출장 중 새로 바뀐 최고경영자(CEO)가 인 사발령을 내버린 것이다. 귀국한 그는 인사부서에 "어떻게 출장 중에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이내 참고 심사 부장 직책을 맡게 된다.

심사부 2년 동안에는 인사이동 과정

에서 비롯한 오해 때문에 불합리한 일 들로 시달렸다고 그는 회상한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질책받는 일이 생겨 '그 만둬야 하나' 생각하고 직속 상사를 찾 아가는 일도 있었다. 게임기를 발매하 고 전국에 게임장을 여는 신사업을 이 끌다 처참히 실패했을 때에도 그는 "훌 쩍떠나는게속편할것같았다"고생

각했다. 다 꾹 참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 노 력했다. 원치 않은 자리에 근무할 때에 는 사장에게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야심 찬 승부수를 던졌다. 사업에 실패 했을 때는 그실패의 경험이 '경력'이 돼 전략기획 담당을 맡는다. 상대측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깎은 상태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해 곤란에 빠졌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 져 잘못된 계약서를 바꿔놓았다.

45년 직장 생활의 밑거름이 된 그의 팁도 책에 담았다. 대표적인 게 '적는 자카 이긴다'는 '적자생존'법. 이 책 역 시 지은이 권 고문이 현장에서 얻은 배 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내 게시판에 'CEO 노트'란 이름으 로 공유한 내용이 바탕이 됐다.

LG가(家) 회장들에 대한 묘사도 이 책의 소소한 재미. 지은이에 따르면 고 (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은 누구 보다 소탈하고 재밌는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마술을 직접 배워 보여주 는 등 타고났다기보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다.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은 절약 정신이 투철해 수첩 대신 지난 달력이

나 보고서 이면지를 잘라 메모지로 사 용했다. 구자학 회장은 지은이에게 '회 의할 때 절대 책상 위에 팔을 올려놓으 면 안 된다', '술자리에서 고객에게 술 을 따를 땐 술병 목 홈의 두 번째 칸에 맞춰 따라야 흘리지 않는다' 등의 노하 우도 전수했다. 지은이는 "구본무회장 에게서는 인생의 철학을, 구자학 회장 에는 사업가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 해야 하는지 배웠다"고 했다.

그는 "4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일 하면서 달콤한 성공을 맛보기도 했고, 때로는 백척간두에서 있기도 했다"며 이 책에 대해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경 험을 담아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를희망한다"고 전했다.

박해리 기자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 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시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승경호 (K Soung)

주거용 부동산 경험 • 구매자 · 판매자 · 투자자 대상 전략 제공

한국어, 영어

부동산 에이전트 / 부동산 컨설턴트

버지니아 주, 워싱턴 D.C. 메릴랜드 메트로 지역

미국 Realty One Group Captal 미전국 8위 기업

상업용 부동산 경험 ▪ 멀티레스타랑 왕만 화보, 물류·유통 창고 암대및 계약 전행

■ 한국 스타트업 및 17, 바이오 기업 미국 진출 지원 SBA, NNN, TI 등 상업용 부동산 금융 · 계약 컨설팅

Innovation Highways: Strategies for Successful

■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 리테일, 창고/공장 임대·매매

■ 주가용 부동산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콘도 매매 · 임대

■ 국제 투자자 자원 한국 기업/개인 미국 진출 부동산 컨설팅

■ M&A (Wharton School) ■ 사업 확장 관련 부동산 자문

기업 컨설팅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 매매가: \$8,000,000

커피 & 샌드위치샵

- · 위치: 알링턴 지역 영업일: 주 7일
- 주매출: 약 \$20,000
- 렌트: \$11,000/월 매매가: \$180,000
- 안정적인 고객층을 가진 소형 커피·샌드위치 전문점. 빠른 인수 가능!

버지니아 와이너리 사업 및 토지 매물 규모: 120에이커 (약 48만m²) · 시설: 테이스팅룸, 코티지, 창고, 와인 공장, 연못, 넓은 주차장 (104대 수용) 현황: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와이너리 매매가: \$7,500,000

자연 경관이 뛰어난 프리미엄 와이너리. 관광·이벤트 운영 병행 가능.

냉동 · 냉장 창고 매물

- · 위치: 메릴랜드 볼티모어
- · 면적: 16,000 SF
- · 설비: 냉동·냉장고 완비 · 매매가: \$1,500,000 유통업, 식품물류, 온라인 배송업체에 적합한 최적 창고!

포럼/세미나 참여 활용 포인트

이름 / 영문 이름

거주/활동 지역

브로커리지

전문 분야

직업

언어

Korea-US Entrepreneurship' 패널 American Korean Business Friendship Forum

(AKBFF) - 이사

■ 한국기업/개인 대상 미국 시업 확장 및 부동산 전략 지문 가능 ■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거래 경험 풍부

■ 워싱턴 D.C. 메트로 네트워크 활용 기능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사업체 임대 계약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우량 상가. 투자자 강력 추첸

투자용 상가 건물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언제, 어디서를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企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 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백화점 "발길에 벌 길 있다" "식품관 이어 문화센터 경쟁



오프라인 매장 변신 전략

3사 경쟁적으로 문화센터 확장 외국인대상 K-컬처 강좌확대 2030 직장인 타깃 프로그램도

백화점 3사가 경쟁적으로 문화센터 확 장에 나서고 있다. 아카데미 성격의 문 화센터 면적을 넓히고 개설 강좌를 차 별화해 고객 붙잡기에 나선 것이다. 유 통 업계에선 식품관 경쟁에 이은 2차전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화센터는 전체 매출 5% 수준인 식 품관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에 돈이 되 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고객 유인 효 과가 확실한 콘텐트 사업이다. 한 백화 점 관계자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기 위 해 백화점에 왔다가 수업 전후로 매장 을 구경하거나 최소한 밥이라도 사먹 는다"라고 말했다. 소매 시장이 온라인 으로 쏠리면서 고객 발길을 붙잡아야 매출도 늘어난다는 공감대 속에 문화 센터도 재평가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아카데미는 27일 리뉴얼을 끝 내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인근 메사 (MESA) 빌딩 9층에 새단장을 마친 아







1신세계백화점 본점 아카데미가 27일 리뉴얼을 끝내고 면적(990m²)을 두배로 확장해 문을 열었다.2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아트 강좌를 직전 대비 30% 확대했다. 3 현대백화점이 운영 하는 점심 시간대 쿠킹과 베이킹 강좌는 여의도 직장인에게 인기다. [사진 각사]

카데미는 990m²(약 300평) 규모로 기 존보다 50% 더 넓혔다. 한 층 전체를 아카데미 공간으로 꾸며 고객이 체감 할수있을정도로크기를키웠다. 신세 계 본점은 올해 초부터 식품관·명품관 등을 새로 단장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리뉴얼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마침표 성격이다.

공간 새단장과 함께 프로그램도 확 늘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K-컬처 강좌를 기존 대비 30% 확대해 역 사·문화·교육·쇼핑이 어우러지는 K-컬처 헤리티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 는 게 이번 리모델링의 목표"라며 "업 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

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외국 인 거주자와 관광객을 상대로 한 K-컬 처 강좌도 별도로 마련했다. 조선 왕실 의차문화를체험할수있는티세레모 니와 궁중요리 강좌가 대표적이다.

롯데백화점은 문화센터를 앞세워 20·30세대를 백화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가을학기부터 아 트 강좌를 직전 대비 30% 확대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아트 콘텐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는 게 롯데백화점의 설명이

활동적인 세대 특성에 맞춰 도슨트 (박물관·미술관 안내자)와 함께 현장

에서 미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아트 투어(Art Tour) 강좌 등을 진행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아트 강좌 신청 마감률이 전년 대비 2배 이 상 성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가을엔 더 늘렸다"고 말했다.

백화점 3사는 직장인 맞춤형 문화센 터 프로그램도 경쟁적으로 도입 중이 다. 현대백화점은 오피스가 많은 지역 에 위치한 여의도 더현대에서 올해 가 을학기부터 코치와 함께 야외 러닝을 체험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진에게 올바른 러닝 자세와 체력 관리법을 배운다. 현 대백화점은 또 직장인 점심 시간대를

겨냥해 쿠킹과 베이킹 강좌도 여의도 더현대에서 운영 중이다.

백화점 문화센터 경쟁은 온라인에 맞선 오프라인 매장의 변신 전략을 상 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연승 단국대 경 영대학원장은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 인 매장이 판매와 거래 중심에서 브랜 드 체험과 고객 서비스 장소로 변화하 고 있다"며 "문화센터 경쟁은 이런 흐 름의 연장선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정한 서비스에 익숙해지 면 다른 서비스로 바꾸기 어려워지는 락인(lock-in, 자물쇠) 효과와 충성 고 객에 집중하는 '단골 전략'도 문화센터 경쟁의 배경으로 꼽힌다.

10·15 대책 영향,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 꺾였다

매매가 상승률 절반 수준으로 둔화 규제 피한 화성·구리서는 풍선효과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은 전주보다 0.23% 올라 지난주 상승폭 (0.50%) 대비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한 달 전인 9월 29일 상승폭(0.27%) 수준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 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출이 크게 줄 고, 토허제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 가 차단되면서 규제 효과가 이번주부 터 나타나는 모습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주 1.25% 까지 치솟았던 서울 성동구가 0.37%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로 상승 폭이 크게 떨어졌고, 광진구 (1.29%→0.20%), 강동구(1.12%→0.42%), 양천구(0.96%→0.38%), 송파구(0.93% →0.48%), 마포구(0.92%→0.32%) 등도 상승세가 낮아졌다. 경기 분당・과천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 로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

> 반면 규제를 피한 경기권 일부 지 역은 상승세가 커지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을 끼고 있는 화성시

(0.00%→0.13%)와 서울과 인접한 구리 시(0.10%→0.18%) 등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13% 에서 이번주 0.14%로 소폭 올랐다. 부 동산원은 "매물이 부족해 전세가격이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대단지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 문위원은 "거래 절벽속 관망세로 3개 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대출 축소로 전세에 머무는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토허제에 따른 매물 잠김으로 전세가격이 시차를 두고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민정기자



이젠 기차로 택배 보내요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 13개 주요 철도역에 설치된 무인 택배 발송함을 통해 2500원으로 전국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인 '레일택배'를 시작한다고 밝 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 설치된 레일택배 배송함.

① 위싱틴 중앙일보

委은아침! 委은신문! 중앙일보







한일합작 드라마, 글로벌 시청자 사로잡는다

"양국 강점 살려 시너지 효과" 넷플릭스·디즈니+ 합작 추세

한일합작 드라마들이 글로벌 시장에 서 호평받으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넷플릭스 등 다양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작한 한일 합작 콘텐츠들이 한일 양국을 넘어 글 로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넷플릭스 공식 사 이트투둠의 '넷플릭스톱 10'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 세계에 공개된 배우 한효 주·오구리 슌 주연의 일본 오리지널 시 리즈 '로맨틱 어나니머스'는 지난주 글 로벌 비영어 쇼 부문 6위, 일본 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 스패트롤에서도 이 작품은 한국과 일 본 외에 대만·태국·브라질·인도네시 아·홍콩·싱가포르·도미니카공화국 등 에서 넷플릭스 인기 상위 5위권에 들며 흥행했다. '로맨틱 어나니머스'는 결벽 증으로 타인을 만질 수 없는 남자(오구 리 슌)와 시선공포증으로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니는 천재 쇼콜라티에(한효주) 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넷플릭스 재팬의 오리지널 드라마지 만 한국 제작사인 용필름이 전체 제작 방향을 주도해, 기존 일본 드라마처럼 섬세한 미감과 감성을 살리면서도 K-드라마 특유의 자연스럽고 흡입력 있



한일합작 드라마인 넷플릭스 '로맨틱 어나니머스'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는 연출을 잘 살렸다는 평을 얻었다.

넷플릭스는 가수 겸 배우 옥택연과 이소무라 하야토 주연의 일본 오리지 널 시리즈 '소울메이트'도 하일 협업으 로제작하고 있다.

이 작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 을 떠난 류(이소무라 하야토)가 한국 인 요한(옥택연)의 도움으로 타지에서 목숨을 건지며 서로 가까워지는 이야 기를 담았다. 다른 글로벌 OTT들 역시 최근 한일 합작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쿠팡플레이가 지 난해 공개한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 들'은 공지영·쓰치 히토나리 작가의 동 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국과 일본 제작 사가 함께 드라마로 제작했다.

또지난 2022년 디즈니+를통해 공개 된 정해인 주연의 시리즈 '커넥트'도 한 국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하고, 일본 미이케 다카시 감독과 나카무라 마사 루 작가가 각각 연출과 각본을 맡은 한 일 합작 사례였다. 이처럼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일 협업 프로젝트가 많아 지는 이유는 한일 양국의 문화·정서적 유사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OTT 플랫폼이 콘텐츠 교차 소비 비중이 높 은 한국과 일본 시청자 모두를 사로잡 기 위해 협업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 로나선다는 해석이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일 본은 이웃 나라로서 함께 공유하고 공 감하는 감정 혹은 서사가 많다"며 "여 기에 양국의 배우나 제작환경 등 서로 의 강점을 결합하면, 글로벌 시청자들 에게 닿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 콘텐츠 시장 규 모가 큰 일본과 K-콘텐츠 제작 노하우 가 탄탄한 한국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내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 곤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파급력이 있고, 일본 콘텐츠는 현지에 서 충성도가 높다"며 "한일 합작을 통 해 양국의 드라마 팬을 모두 사로잡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청자 저변을 더욱 확대할수있다"고했다.

가수 이상민, 프로듀서로 복귀 20년만에 K팝 혼성그룹 제작

그룹 룰라 출신 가 수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한 이상민(사 진)이 유튜브 예능 '프로듀서 이상민' 을 통해 약 20년 만 에 프로듀서로 복귀 한다.



이상민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유튜 브에 공개한 '프로듀서 이상민' 1차 티 저 영상에서 이런 계획을 알렸다.

'프로듀서 이상민'은 이상민이 직접 K팝 신인 혼성그룹을 제작하기 위해 오디션을 진행하고 신곡을 만드는 과 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상민은 영 상에서 "이제는 팬덤이 남녀로 나뉘지 않고 한팀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다"며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혼성 그룹을 제작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민은 1994년 혼성그룹 룰라로 데뷔한 뒤 프로듀서로 전향해 디바, 샤 크라, 샵 등의 그룹을 제작했다.

'프로듀서 이상민'은 이상민과 K팝 전문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케이프스 플래닛이 공동제작한다. 케이프스플 래닛은 엠넷 '쇼미더머니', '슈퍼스타K' 등 다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출한 유 일한 PD가 이끄는 기업이다.

'프로듀서 이상민'의 본편은 추후 공 개될 예정이다.

낮추세요, 그래야 연애도 가능 "법륜의 '청춘페스타'

요즘 청춘 연애 자체를 못하더라 집착내려놓고고민가볍게 여기길"

'청춘콘서트'(2011~18년)를 통해 이땅 의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를 건넸던 법륜 스님(72)이 다시 청년 들을 위해 마당을 펼친다. 7~9일 서울 서초구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5 청년페스타: 세상을 향한 우리들 의 움직임'이다. 지난달 30일 정토사회 문화회관에서 법륜 스님을 만나 '청년 자살률도 높고, 취업도 어렵고, 방콕하 과길'을물었다.

다. 다시 '2025 청년페스타'를 여는 이유



법륜 스님은 "청년들은 연애·결혼·학업·취업 등 고민이 많다. 살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는 은둔고립 청년도 많다. 그래서 청년 - '청춘콘서트'가 막을 내린 지 7년 만이 들에게 무언가 기운을 주고 싶었다."

잇따라 자살했다. 학교에서는 기술이 "청년들이 너무 희망이 없다고 할까. 나 지식을 가르쳤다. 거기에 삶의 선생

은 없었다. 법륜 스님은 대학생을 대상 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물었다. 시골의사 박경철, 2011년이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안철수 안랩 대표(정치인이 되기 전) 등과 함께 팀을 꾸려 전국의 대학을 돌 며 '힐링의 장'을 만들었다.

-청년들의 고민은 주로 어떤 건가.

"크게 네 가지다. '연애, 결혼, 학업, 취업'.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직장생 활'이다. 예전에는 연애를 하다가, 연애 가 잘 안 돼서 고민인 청년이 많았다. 요즘은 다르다. 아예 연애 자체를 못한 다. 남녀가 잘 만나지지 않더라. 다들 위를 쳐다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 다 다." 른 말로 하면 각자의 욕심이다."

-그런 청년에게 뭐라고 조언하나.

"처음부터 연애해야지 생각하지 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고, 편하게 만나라고 말한다.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좋으면 연애하라고 한다. 인연(因緣)이 오면 감사하고, 떠나가면 연(緣)이 다했다 생각하면 된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런 말 들으면 묵직하던 나의 고민이

좀 가볍게 느껴질 것 같다.

"맞다. 별일 아니라는 걸 자각하면 된다. 대학 떨어지면 재수하지 않나. 지 금 당장은 큰일이다. 30년 지나서 보면 어떤가. 재수했나, 안 했느냐는 인생에 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지나고 보면 이 리되든, 저리되든 별일 아닐 때가 많

-가령 이혼한 30대 중반의 청년이 자신 의 고민을 이야기한다. 거기에 대고 "별일

"물론이다. 남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는 없다. 기나긴 인생에서 이게 정말 별 일 아니구나, 그걸 스스로 각성해야 한 다. 나는 대화를 통해서 그런 자각을 도와줄뿐이다."

백성호 종교전문기자

🯲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방 3, 화2+2, Main Level 품질 좋은 마루, 1~2층 데크, Cul-de-Sac 으로 어린이들이 놀기에 안전,데크 뒤로 숲 View, 그 숲 안에 산책로 있음,10/11/2025, 1:00 ~ 4:00 PM 오픈하우스, 10/9 마켓에 올라올 예정 올 겨울/내년 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2,000 ~ \$5,500 가격대 렌트 복수 오퍼 받아 제일 좋은 조건의 오퍼로 결정,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1477 Hampton 입주 예정 \$1.3M 마켓에 올린 후 4일 안에 계약 완료, 10/24 세틀먼트 예정 7608 Lee Landing Dr, Falls Church, VA \$2,600 자격 넘치는 세입자 연결 6501 Divine St, Focal Point Homes 빌더가 지은 4년 된 집, 주인의 사랑과 잘 관리된 집, 방 7, 화 6.5, 정전 대비 제너레이터 있음. 주재원, 지난 6년간 세입자도 로리 손님, 이번에도 2901 Gettysburg Sq, Vienna, VA 매매 RENTED 마켓에 내 놓지 않고 바로 연결 + 렌트 완료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970,000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렌트 마켓에 올라오자 마자 3일 안에 계약 완료,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위 1477 Hampton Hill 셀러가 소개, 10/14일 세틀예정 8220 Crestv \$1,225,000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오픈하우스 때 온 손님을 바이어로 만듬, 셀러/바이어 So Happy, 1년 \$279,900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 안 주는데, NEW 계약 후 2 주 안에 세틀먼트 완료, 9/30 세틀먼트 완료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주인측 에이전트를 잘 아는 사람이라 받아줌. 주재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델리샵(DC) \$150K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주재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14010 Tanners House Way, Centreville, VA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사무실 (703) 622-0312 적통 (703) 625-9909



가을축구 뛴 손흥민, 짜릿한 첫승

LAFC, PO 1차전 오스틴FC 제압 손, 후반 34분 패스로 결승골 관여 1차전 MVP 선정…내달 2일 2차전

'가을 축구'에 나선 로스앤젤레스 (LA)FC 손흥민(33) 발끝에서 결승골 이 시작됐다.

MLS의 가을 축구는 동·서부 콘퍼 런스로 나뉘어 8강전(1라운드)부터 진 행한다. 규정상 90분간 승부를 가리 지 못하면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에 돌 입한다. 정규시즌 서부 콘퍼런스 3위 LAFC의 상대는 6위 오스틴FC다. 3전 2승제인 1라운드의 경우 1, 3차전은 상 위팀, 2차전은 하위팀 홈에서 각각 열 린다.

LAFC는 29일 LA BMO 스타디움 에서 열린 2025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플레이오프(PO) 1라운드 1차 전에서 오스틴을 2-1로 꺾고 첫 승을 챙겼다. 전반 20분 상대 자책골로 선 제 득점한 LAFC는 후반 18분 동점골 을 내줬다. 1-1로 맞선 후반 34분 손흥 민이 상대 선수 2명을 따돌리고 저돌적 으로 중앙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드니 부앙가 는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상대 수비수 에게 맞고 굴절돼 골문쪽으로 향했다. 공이 골라인을 넘기 직전에 나단 오르 다스가 마무리했다.

MLS는 북미아이스하키리그 (NHL)처럼 패스→패스→골의 경우에



전반 상대 자책골 직후 팀 동료 홀링스헤드(오른쪽)와 기뻐하는 손흥민. [LAFC SNS 캡처]

첫 패스도 어시스트로 보는 만큼, 손 흥민의 패스도 어시스트로 수정될 가 능성이 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전 "오늘 경기 가 없었다면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를 보러 갔겠지만, 나한테는 우리 팀 승리가 더 중요하다. (올 시즌) 오스틴 에 두 번 다 졌지만, 나랑 부앙가가 (대 표팀 차출 등으로) 없을 때 졌다"고 말

미국에 오기 전까지 지난 15년간 손 흥민은 '포스트시즌' 제도가 없는 독 일과 잉글랜드에서 뛰었다. 이날 경기 가그의첫 '가을축구'인셈이다. 오스 틴이 거친 몸싸움으로 덤볐지만, 손흥 민은 지능적으로 피하며 7차례나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손흥민은 전반 35분 4명의 상대 수비수 사이에서 왼발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손 흥민은 경기 최우수선수에 선정됐고, 통계 전문 풋몹은 양팀 최고인 평점 8. 1점을 매겼다. 2차전은 다음 달 2일 텍 사스주 오스틴의 Q2스타디움에서 열 린다.

한편, 이날 MLS 선수협회가 공개한 '2025 MLS 연봉 현황'에 따르면, 손흥 민은 1115만 달러의 보장 연봉(기본급 , 계약금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 마이애미 리오넬 메시(2045만 달 러)에 이어 MLS 전체 2위다. MLS에 서 1000만 달러 넘는 보장 연봉을 받는 선수는 손흥민과 메시뿐이다.

박린 기자



오타니 무릎 꿇린 신인

토론토, WS 5차전 6-1 승 선발예새비지 7이닝 12K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메이저리그 (MLB) 월드시리즈(WS:7전4승제) 우 승까지 1승만 남겨뒀다.

토론토는 29일 LA 다저스타디움에 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WS 5차전에 서 선발투수 트레이 예새비지의 호투 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6-1로 이기 고시리즈 전적 3승2패를 만들었다.

토론토는 하루 휴식 후 다시 홈인 캐 나다 토론토 로저스센터로 돌아가 WS 6, 7차전을 치른다. 남은 두 경기에서 1승만 더하면 1993년 이후 32년 만의 WS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 토론 토는 케빈 고즈먼, 다저스는 아마모토 요시노부를 각각 6차전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토론토의 22살 선발투수 예새비지 가 5차전 승리의 선봉에 섰다. 예새비 지는 7이닝을 사사구 없이 3피안타 12 탈삼진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예새비지는 지난해 MLB 신인 드래프 트 1라운드 전체 20순위로 토론토에 입 단한 루키다. 배영은 기자

골프칼럼

벙커샷 핵심은 볼과 타면 간격 두께를 터득해야

미국골프는 연못으로부터 골프를 배 우고, 한국과 일본골프는 흰 말뚝, 즉 OB(out of bounce)로 골프를 터득하며 유럽골프는 벙커에서 스윙을 배운다.

실제 미국내의 대다수 골프장은 연 못(water hazard)이 눈에 띄게 많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은 산악 이라는 지역상의 문제로 매 홀마다 흰 말뚝이 무수히 보인다.

특히 유럽의 골프장들은 골프역사 의미한다. 의 발상지 답게 페어웨이(fairway)와 bunker)에 볼이 들어가고 만다.

원래의 골프장에는 OB가 없었다.

골프 발상지 세인트 앤드루스(스코 트랜드)는 해변가의 잡초지역으로 어 디서든 볼이 놓여 있는 상태 그대로 플 레이해야 한다는 규칙만 있었을 뿐이

즉 'Play the Ball as it lies.'

이것은 곧 골퍼들이 그 장애물에 도 전하느냐, 아니면 회피하는가에 따라 며(pop) 빠져나오면서 그 모래 위에 볼 고 심지어는 모래 속에서 클럽헤드가 전진과 후퇴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함을 일어 날라준다는 감각과 요령을 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한다.

따라서 연못은 도전을, OB(흰 말뚝) 그린주변에 수많은 벙커가 있어, 조금 는 회피를, 그리고 벙커(sand trap)는 과 모래사이의 간격과 깊이(두께)로 거 바닥만큼 보다 더, 그립을 짧게 내려 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항아리 벙커(pot 과감성을 요구한다. 과감성이란 주저 리를 조절해야 한다. 만약 모래 속에 클 (평균 1,5인치) 잡아야 한다. 그리고 왼 없는 스윙을 의미한다.

듯 어르지 말아야 한다. 즉 다운스윙 속도를 조절해서 안된다는 뜻이다.

벙커샷은 한 움큼의 모래와 함께 볼 이 실려 나가는 것이 기본이며 팔로스 루(follow through) 여부에 따라 샷의 향방이 결정난다.

벙커샷은 클럽헤드가 모래를 튕기 득해야 한다.

럽헤드를 깊이 쳐 넣거나 혹은 볼 만 발에 약 60%의 체중을 배분해야 의도 벙커에서의 스윙은 갓난아이 다루 '살짝' 떠 올리려는 마음이 앞서면 결 하는 지점(볼과 클럽타면 사이)에 클럽

정적인 낭패를 보고 만다.

벙커 샷에서 팔로스루가 안되는 첫 다 보면 오른쪽어깨가 지나치게 처지 며 클럽헤드가 모래 속에 박히기 때문 이다

이런 경우 방향과 거리감이 없어지

특히 스윙 전에는 양쪽 발바닥을 모 그리고 샷(다운스윙)을 했을 때 볼 래 속 깊이 묻고, 모래 속에 들어간 발

헤드를 떨굴 수 있다.

따라서 클럽헤드무게를 이용하여 번째 이유는 다운스윙을 강하게 하려 다운스윙을 하지만 양손의 그립은 부 드럽게 쥐고, 다운스윙에서 오른쪽어 깨를 수평에 가깝도록 회전해야 의도 하는 모래 두께(깊이), 즉 거리감과 방 향성을 얻을 수 있다.

박윤숙 Stanton University 학장

703.281.9660

DC건물 | NNN | 창고 | 샤핑센터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Why US?

- 미국 3대 상업용 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 의 업무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 브러커 Data Base 보유
- •Offering Memorandum, YouTube 제작 •CoStar, LoopNet Premium 리스팅 광고
- 2 건물주의 이익과 직결되는 NATIONAL 테넌트를 찾아드립니다.

- 상업용 부동산 리스팅 전문업체 CoStar가 선정한 TOP POWER BROKER, 팀 플레이를 통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DC건물 테넌트와 TOPA (Tenant Opportunity to Purchase Act) 거래 전문, '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프렌차이즈, 도매, 호텔, 카와시, 코인런드리,리커 비지니스 / 건물 매매 케빈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 FULL SERVICE FOR REDUCED FEES! 브로커에게 주는 커미션에 대한 부담을 O 줄여드립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신!

- •CoStar 선정 TOP POWER BROKER
- Broker Licensed DC, VA, MD
- Marcus & Millichap 근무경력 / NNN Investment
- •Shopping Center 투자 / Property Management 경력
- ICSC Member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703-395-3123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6 메디케어 등록안내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5년10월 15일 ~ 12월 7일

생명보험, 장기 간호보험, 자동차, 주택, 빌딩, 사업체보험도 비교해보세요.

상담 예약 703-973-5900

애난데일 지점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14631 Route 29, #214,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800-232-5014



Melissa Kang 410-216-1553

매주 토요일 무료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엘리콧시티 지점

9AM~4PM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27년의 경험과 실력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Fairfax Richmond Ellicott City Tidewater/Newport (703) 642-0305 (804) 767-3714 (410) 216-1553 (757) 941-7216

Tidewater/Newport News



jglconstruction.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 <mark>창문</mark> |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보가 곧 신용입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 703-678-1749 Cell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HELPER, TECHNICIAN 구함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런칭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편한나라 척추신경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 이력서 보내실 곳: carefreeland@gmail.com

П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충족을 걸으면 건강과 행득이 함께 찾아 입니다"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企图

571-239-605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확실한 순익보장 델리

-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SILLE)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워싱턴베다니장로교회(게이더스버그소 재)에서주일1부예배를섬겨주실반주자한 분을모십니다.

-예배시간:주일1부예배오전8시(연습시 간오전7시20분및예배)*일년에두차례있 는특별새벽기도회때이틀간반주하셔야함 -지원자격:세례교인으로교회반주에은사 와사명감이있는분(성가및복음성가) -제출서류:이력서및신앙고백이담긴간단 한 자기소개서

-제출처:BPC.Music.Dept@gmail.com -제출기한:청빙시까지

-사례비:교회내규에 따름 (추후통보,혹시 궁금하신분들께서는문의바랍니다) -문의사항:이민형장로:216-870-9234 이메일: leeminhyung7896@gmail.com 김요한목사:301-215-0065 이메일: shalom198484@gmail.com -교회주소: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TEL:301-670-1200 http://bethanyusa.org/

부티케어브랜드회사직원모집 마케팅세일즈분야,영어/한국어가능 출장업무필수,운전경력풍부하신분 취업에결격사유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타주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복지센터에서 함께일하실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기사(옴니거주환영) 주방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젼트구함,사무실제공,유/무경 험자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병가/휴가, 보험등 자격요권: 합법적근무조건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종합보험에이젼트에 서함께일하실이중언어(영어또는스패니 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주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가능/월요일-금요일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구사해 야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com으로보내거나

락빌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일하실 전산 아이템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식권보접 · 문신기자 / 간호자(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PG 카운티리쿼스토어라러리스탁하실분 2-9pm 일하실분구함(금,토포함) 301-336-2500

메릴랜드 라이센스 소지하신 마사지 세라피 스트 구합니다. 240-232-5989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구합니다.(전기,목수,타일,배관,창문,마루,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19개월남자아기돌봐주실분구합니다. 입주가능또는출퇴근(풀&파타임) 410-961-3012

엘리콧시티 혜반한국식당에서홀서버하실 분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가능한델리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영주권프로그램 변호사가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무관, 직계가족도 영주권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SD MECHANICAL 테크니션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서비스와설치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지원부탁드립니다 서비스지역 VA, MD, DC

서비스지역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엘리곳시티세탁소바느질 유경험자구함 풀&파타임, 배깅만하실분도구합니다.

파사데나지역비빔밥캐리아웃같이일 하실분구합니다.남녀모두환영 443-991-9331

410-926-3200

싱글/타운방렌트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도서관,한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아파트식, 뒷문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저먼타운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주방,가구,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화3.5,10월1일부터 입주 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하워드카운티반지하전체렌트 방2,부엌,욕실,세탁실,출입문별도,롯데에 서15분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95,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그린벨트지역,조용하고교통편리 타운하운스방하나렌트,즉시입주가능, 방세저렴 301-379-9660

메릴랜드실버스프링싱글홈 1층 전체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교통편리, 즉시 입주가능 301-646-3127

사업체 매매

확실한순익보장델리 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수익15만불이상(주매상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 저렴한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건물, 주5일(6 am - 3pm) 꼭관심 있는 분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회계사무실직원모집 매니져/시니어어카운턴트 회계사자격증소지자 문의:571-389-4415 이력서:hr@yicompany.com

간호사 모집 RN, LPN (풀타임, 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

함께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화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있으며, 영주권스펀서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사무실제공,유/무경험자가능,VA&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BridgeOne Insurance 보험에이젼트구함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무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이중언어필수)를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풀타임) 급여: 인터뷰후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I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센터빌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 이민법사무실, I-140파일, 패러리걸(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경력자우대함

유급휴가제공 / 경력자우대함 - 지원및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지역덴탈랩CAD/CAM,ZIRCONIA

원스텝기술자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센터빌)업무팀직원구함 유경험자우대이중언어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전공 자나경력있으신분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근무시간8시-5시(월-금) 401(K),치과보험,유급휴가\$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문의: 571-348-3723

정관장애난데일 매장직원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판매경험자우대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할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홈케어에이전시구인

애난데일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지역물리치료병원에서 한국어/영어가능한Receiptionist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센터빌/챈틀리지역 임플란트전문치과풀/파타임 유경력어씨/리셉션환영 이력서첨부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리셉션니스트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콴티코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풀/파타임 443-978-0900

영어가능한델리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져구합니다. 영어필수, 경험자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진욱 착추신경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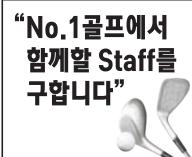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최대스크린골프 **N () .1** GOLF LOUNGE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브래덕 🔉

진료 과목

●임플란트 ●신경치료 ●교정

- ●충치치료 ●전체/부분 틀니
- •교정
 •일반치과

 •발치
 •미용치과
- ●크라운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잇몸치료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bigcirc 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중앙일보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구합니다. 703-258-4356

에난데일일본라면가게에서 파타임홀직원 구함.유/무경험자환영 703-338-3037

에난데일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환영 571-352-4938(문자) 또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주방,쿡(숙소제공가능) ▶443-420-3096

Chimc.va@gmail.com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케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스토어RT 1 & 234 야간근무가능하신분(11PM - 7AM) 나이불문, 남자분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인터내셔널수퍼마켓 정육부매니저1명, 그로서리매니저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 모십니다 일주일에 3,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테일러샵에서 바느질하실분 모십니다. 3일파타임가능하신분 703-328-3064

비엔나지역세탁소에서파타임으로일하실 분을모십니다. -카운터캐시어, 유틸리티워커

(영어가능자) 7am-3:30pm(월,화,목,금)

4pm-7:00pm(월-토) 유경험자우대,무경험자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자동차 /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구합니다. 첫째/셋째토요일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구인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핸디맨구합니다.(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GMU 대학체육관 뒤 조용한 싱글홈 전체 렌 트합니다. (웃슨 하이 학군) 방4, 화2.5, 차고2, 교통 편리 (조지메이슨 1 마일, 패어팩스 H마트 1.3마일) 703-350-2278

스프링필드싱글홈(애난데일부근) 방3,화2,즉시입주가능\$3,600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렌트 \$2,400, 방3, 화장실3.5, 업그레이된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타운하우스 \$2,900 로빈슨하이스쿨근처1,496sqft 전체렌트 방3,화3.5,11/5일부터입주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렌트합니다. 방3,풀화장실,리빙룸,큰덱,큰창고,차고2 개,넓은 뒷마당,395/495/95 3분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타운하우스렌트\$3,300 전체마루,차고2,덱,267/607 Briar Woods하이스쿨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화2.5,차고1,End Unit, 편리한로케이 션, 잘관리된집 2.센터빌타운홈\$3,0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

이함, 굿로케이션 3.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3.스프딩필드 다운음 \$3,000 방2,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패어팩스 Costco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703-919-0472

1.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렌트\$3,500 방3,화3.5,2car garage, 긴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파웰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화3.5,2car,전부마루,주차다수 SouthCounty 하이,RT95/395/286/123

▶571-239-6054

콘도렌트

센터빌롯데근처콘도전체렌트합니다. 방2,화2.5,교통편리,즉시입주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콘도\$1,500 방1,화장실1,고급스런나무마루,탁트인 넓은콘도,업데이트된부엌,계단없는1층 나무가보이는넓은발코니,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콘도 \$2,600 방2,화장실1,1,105 SF 넓은콘도, 13층으로탁트인조망,엘리베이터, \$100,000 가량수리하고업데이트한모델 하우스같은콘도, 넓은새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리빙룸, 리모델한화장실, 새페인 트,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콘도\$1,700 방1,화장실1,엔드유닛880 sf,넓고 밝은 콘도,세탁기,건조기,새화장실,나무 마루 거실,새페인트,넓은 발코니,코스트코에서 1분거리,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H마트근처콘도전체렌트 방1,화1,주차2,완전리모델링,모든가전 제품새것,즉시입주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렌트\$3,000 방2,화2.5,차고1,이노베이션메트로역도 보,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교통요지 ▶571-239-6054

1.옥톤싱글\$3,600,방5,화2.5,차고 2,2.5acre숲속,아름답고조용한 게이트있는집

2.센터빌stonegate, 콘도렌트\$2,100 방2,화2,2층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로튼(애난데일에서 15분 거리) 조용한주택

가 1층같은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 리티 포함, 출입분 별도, 2500 sqft 571-488-5860

애난데일 원룸스타일 방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H마트옆밝고조용한콘도방하나 렌트,남자분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에 네이크시크하바그크회자시따르

애난데일큰싱글홈 밝고큰화장실 딸린방 렌트합니다.교통편리 롯데1분한강식당1 분거리,입구별도,주차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지역조용한싱글홈방렌트, 간단한취사,가구완비,인터넷,학생또는직 장인여성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 는곳) 조용한싱글홈 베이스먼트 방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가능, 교통편리, 주차넉

다그이것, 신한 뒤지기당, 교통인니, 구시덕 넉, 남자분환영 703-750-2795 GMU근처조용한동네싱글하우스욕실딸

린큰방하나렌트합니다. 남자분환영,즉시입주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예촌앞타운하우스 방렌트합니다. 가구완비, 취사가능, 직장인, 학생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타운하우스밝고조용한 윗층방렌 트, 나무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메시아장로교회뒤타운홈 2층 방하나렌트, 남자분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렌트합니다. 방3,풀화장실,리빙룸,큰덱,큰창고,차고2 개,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CVS 근처깨끗한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렌트 또는 하숙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하이스쿨 건너편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키친,욕실,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H마트근처싱글홈1층렌트 방1,화1,주방,여자분환영\$1,200 즉시입주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순복음교회앞주택지하렌트 방2,화장실,큰거실,부엌,방하나쓰실분 또는전체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싱글홈반지하방렌트놓습니다. 출입문별도,취사가능,여자분환영 571-213-9080

센터빌롯데근처타운홈이층욕실딸린큰 방하나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CVS 근처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룸/개인욕실/워크인클로젯/여성분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571-239-6054

애난데일(자이언트근처)오피스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던킨뒤환한오피스콘도 렌트 \$1,900,1,200sqft, 룸3개,화1,오픈스페이스,파킹다수, RT29/66/28/286

애난데일지역오피스렌트 오피스전체4Room\$1,6001사무실 \$500(전기, Wifi포함) 703-209-5150(문자요망)



부동산 매매

챈틸리급매타운하우스\$300,000 방2,화1,아담한뒷마당 ▶703-231-5572

센터빌벽돌타운하우스\$589,000 방3,화2.5,차고1HMART근처 29/28/66 Braddock

29/28/66 Braddock ▶571-239-6054 우드브릿지타운홈\$410,000

방3,화31/2,잘관리된밝고환한집,펜스 가있는 뒷마당, 3층구조,업그레이드된지 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시스템 ▶703-813-8949

1. 엘리컷시티싱글홈 \$820,000 방 4, 화 2.5

2. 콜롬비아타운홈 \$595,000 방 3, 화 2/2 ▶ 301-318-4242/443-668-0453

1. 워싱턴 디씨듀플렉스 \$950,000

방4,화장실 4+1,차고1,새집,편리한교통, 모던하고예쁜집 2.워싱턴 디씨SE 타운 \$649,000 방5,화장실 3+1,새타운 하우스,모던하게

▶410-417-7080

지은예쁜집

1. 메릴랜드 포토맥싱글홈 \$1,075,000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잘꾸며진집,좋은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새로고쳤으며. HOA가없는집 3.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화장실 2+2,차고 2,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1층에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화장실 3+1,차고 2 13년된 벽돌로지어진고급타운홈, 5. 엘리컷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패어팩스싱글홈\$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구조와 잘 가 꾸어진집, 벽돌, 마루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비엔나싱글홈\$1,875,000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집, 편리한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유닛, 아주 밝 고이쁘게 잘꾸며진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화1,1/2층오픈LOFT835 sqft, 전부리모델링,나무마루 2. 맥클린 콘도 \$409,000 방2,화2,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elleria옆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화2,TopFloor엔드유닛, 업데이트되고 잘관리된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싱글홈\$770,000 방3,화3.5,차고2,업그레이드부엌,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 레이드한집, 넓고고급스러운집

▶703-899-899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화2.5차고1,좋은동네,좋은학군,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페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방3,화장실3,차고2 3. 챈틸리새 빌더홈콘도(2025년 완공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2025년 완 공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5. 챈틀리콘도새 빌더홈(2025년 완공예정)

\$530,000 방2,화장실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703-231-5572

방3,화2단층집으로넓은백야드0.3에이커 프랜코니아지역으로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 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계단 없슴. 2. 매나서스콘도\$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 그로서리,병원,레스토랑,도서관등좋은생활 여견

▶703-483-0505

사업체 매매

알링턴지역 커피&샌드위치샵매매 주7일영업,주매출약\$20,000,렌트 \$11,000/월, 매매가\$180,000 안정적인고객층을 가진소형 커피, 샌드위치 전문점, 빠른 인수 가능

▶703-928-5990

확실한순익보장델리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수익 15만불이상(주매상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 저렴한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건물,주5일(6am-3pm) 703-300-7207(문자)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BBQ&Hot Pot급매 \$280,000 메릴랜드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 링비절감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델리샵(DC)\$150K DC내위치, 장사잘되는곳이나은퇴예정, 안정된수입,투자용 ▶703-625-9909

240-988-6868

헤어, 네일&스파살롱사업체 매매 (레스톤/헌돈지역) -\$100.000 -현지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좋고지속성장가능 -월임대료&수도세없음** -6개헤어부스+2페디큐어부스+2네일 테이블+1마사지룸+1왁싱룸 꼭관심있는분만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중고 매매 / 기타

비숙련영주권프로그램 변호사가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상태좋은남/여중고골프세트싼가격에팝

703-966-9072 (Mr.Kim)

부동산학교(5주속성반) 2025년 9월 16일(화) 개강 한국식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기본 컴퓨터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제 작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350(교재비\$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악기별개인맞춤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H마트근처텃밭공유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세일 (센터빌) 다이닝테이블,쇼케이스그림,유로피안장식 품,골동품,청동으로된인어공주,자수정수 집품,강아지케리어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서너번만사용해상태좋음,필요하 신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교통국업무 ▶571-294-0057 (Jim Dong)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 붕제너럴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고민/돈걱정그만하세요 ▶703-835-0945

형제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건축콜롬비아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욕실/전기설비,타일마루/루핑,카펫, 페인트/각종목수일일체

►443-980-1167

JL건축주방&욕실리모델링 예쁘고실용적인주방과욕실을디자인하고 만들어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덱메인터넌스와 클리

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전문회사/건축,시공및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자체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그외모든공사,주 정부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지금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점검이, 내일의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메디케어/메디케이드보험 ▶703-862-5395

조은혜종합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장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모기지네이션 - 낮은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서비스와 설치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관 심있으신분지원부탁드립니다 서비스지역 VA, MD, DC

Email: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UNIVERSAL 히팅,에어컨가정용/산업용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Mr.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케리아 웃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K18,K14,K10,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단팀보유, 놀라운품질, 저렴한가 격,모든샘풀가지고방문

▶703-600-9031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 지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스 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703-967-4155

플러밍

SK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 셔,Disposals,상하수도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냉동,집안밖물새는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배송서비스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mimovingllc@gmail.com

정크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이사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해운

정확한선택,확실한만족,귀국이삿짐 포장이 사,타주이사(차량운송)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시내 이사,고품격 포장.자체창고보관서비스한국 화물배송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확실한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703-550-5550

301-222-3277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포 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 보관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보험처리가능/용 접(철,스텐,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닥트)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시공과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C 집수리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 -980 - 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기술자,영어소통필수 973-997-5805 (엘렌)

▶703-929-9601

▶703-346-5962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소지, 전화상담환영, 무료견적, 철저한AS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전기,카메라, DATA 24시간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유리,거울 Frameless샤워도어Aluminum,Door설치, MD/VA/DC지역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중앙일보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내려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 TRANE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페인트

Since 1988

-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mark> <mark>▶상가 및 빌딩 신축ㆍ리모델링</mark>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mark>▶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mark>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Call 24시간 가능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571.623.0255

Annandale

업 범망애운 귀국이삿짐/차량운송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무료겨전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USA(SAN DIEGO) USA(NEW JERSEY)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교려통운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USA(ATLANTA)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20년 전문// ▶귀국 이사 전문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보 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Golden Dew Jewelry

- 백금(Platinum)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K14, K18, Setting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443-980-1167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중앙일보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에어컨&이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703-813-8949 Huundai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03.380.228



JGL Construction Inc.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703,994,2943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A-MD-D.C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24 hours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지하실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플러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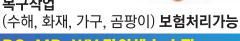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져
- ◆ 워러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썹펌프 교체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회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Young Lee

^{무료 방문}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not be far off; 비슷하게 맞추다

(Mitch is talking to his neighbor Terry ...) (미치가 이웃인 테리와 이야기를 나눈다…)

Mitch: Have you found a job yet? 미치: 직장은 찾은 거야?

Terry: No. I gave up looking for one. 테리: 아니. 직장 찾는 거 포기했어.

Mitch: Did you hit the lottery? 미치: 로토라도 당첨됐어?

Terry: No but you're not far off. 테리: 아니. 하지만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어.

Mitch: What are you talking about?

미치: 무슨 말이야?

Terry: I'm going to inherit some money from a rich

테리: 삼촌이 부자인데 돈을 좀 물려받을 것 같아.

Mitch: How much are you going to get?

미치: 얼마나 되는데?

Terry: I have no idea,

테리: 그건 모르겠어

Mitch: I hope you're not counting on too much.

미치: 철썩 같이 믿지는 않는 게 좋아.

Terry: I'm trying not to. 테리: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해.

기억할만한 표현

▶ *give up: 포기하다.

"I have given up trying to learn Russian." (러시아어

배우는 거 포기했어.)

*hit the lottery: 로토에 당첨되다.

"If I hit the lottery I'll buy you whatever you want." (복권에 당첨되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 사줄게.) *count on (someone or something): 믿다. 의지하

다. "I know I can count on her because she has always

helped me when I needed help."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 녀는 의지할만해.)

낱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열쇠

(1)본디부터 그곳에서 나는 종자 (2)풀을 뜯기며 가축을 치는 아이 (4)참호나 잠수함 따위에서 쓰 는 반사식 망원경 (6)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 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 (7)지금까지 거쳐 온 학업, 직업, 경험 등의 내력을 적은 문서 (8)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 주는 표지 (10)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자녀들에게 노환의 부 담을 주지 않고 일생을 마친다는 말. ~ 이삼사 (12)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다 (14)봄·여름·가을· 겨울 (16)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만든 동 물 표본 (17)건물 따위의 뼈대 (18)사람이 한평 생 산다는 것이 꿈 한번 꾼 것같이 짧고 허무하 다는 말. □장□□ (20) 죽고 사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함. ~하고 정상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22) 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 그는 곡식 가마니를 ~에 실었다 (25)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 (27)방 안 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 (28) 쇠붙이를 녹여 만든 화폐 (29) 기름을 짜고 남은 깨의 찌꺼기. 낚시의 밑밥이나 논밭의 밑거 름으로쓰인다

세로열쇠

(1)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 는 사람 (2)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 라타는 일 (3)시아주버니의 아내. 시동생의 아 내. 처형이나 처제의 남편 (4)어린아이가 잠을 자려고 할 때나 잠이 깨었을 때 떼를 쓰며 우는 짓 (5)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따위가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시기. 지난 3월 5일이었 죠 (6)편지를 보내는 데 쓸 수 있게 훈련된 비둘 기 (8) 16세 무렵의 꽃다운 청춘. 혈기 왕성한 젊 은 시절 (9)조롱박이나 둥근 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 (11)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남 (13)상급 학교나 상급 학년으로 진학이나 진급을 하지 못함 (14)짐승, 특히 소의 네 다리 뼈 (15)가시철사를 감아 만든 철사 울타리. 눈 녹은 산골짝에 꽃은 피누나/~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세월을 한탄하랴 삼팔선의 봄(최갑석) (19) 총각이 죽어서 된 귀신 (21)높은 곳이나 낮은 곳 을 오르내릴 때 필요하죠 (23)종이와 붓과 먹 (24)말의 발톱 (25)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끊어 팔 던 가게 (26)큰 체육 경기에서, 경기장에 켜 놓 는 횃불

스도쿠

놈	Η̈́ω		후	주		l2	ᆂ	판
追		IŁ	성	늎		다		帥
lΥ	논	昂			胀	łΥ	원	
		움	춯	상	尼		조	룬
Y	中		챵		łY		垦	łY
ħ	주		륜	晁	논	논		
	丑	장	lo			ŀY	þ	lo
톱		ᆿ		ŀY	品	돤		中
£	ᅃ	召		웈	눔		왕	抽

5		2				6		7
9			7			2		
6							8	
		4	9					
	6		5	7			1	
		8		4		7	2	
4			3	8	6			
	7			2	9			6
3			1		7	8	4	9

•	94	_	_	e	3
	ь			٢	
	24	٠	- 2	: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6	Þ	8	L	S	ı	9	7	3
9	3	I.	6	Z	Þ	S	L	8
7	L	S	9	8	3	6	L	t
S	2	L	ε	Þ	9	8	6	Ļ
Þ	L	6	8	L	S	3	9	7
8	9	3	2	I.	6	Þ	S	L
L	8	Þ	S	6	S	L	3	9
3	S	S	Þ	9	L	L	8	6
L	6	9	L	3	8	7	Þ	S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위싱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위성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Home
(Phone #)	Cell
 	지불방법 Check Bill Credit Card 1년 선납 \$150
(Subscription Fee)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종류 VISA Master Amex Discovery 카드렛먼 카드 번호 EXP. DATE: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	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Y Liberty www.worldpay.com

1위 결제 솔루션 기업 Worldpay의 공식 파트너사 Liberty Bankcard(MPS)

브랜치 창업자 & 소액 투자자 모집

캘리포니아와 미 주요도시 신규 브랜치 오픈 예정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00명 한정모집

무집매상

소액투자자 (50명) \$5,000 투자 참여 가능 운영 참여 없이 수익 배당 설명회 참여 필수 창업운영자 (50명) 지역 브랜치 창업 및 직접 운영

초기 6개월간 고객 유치 협력



상담자 모든분께 책 증정 : International best sellers 브라이언 트레이쉬 & 사라 류 박사 공저 Suceeding In Business In any market E-book 증정, 이메일/전화상담 환영 info@meridianwish.com

철저한 교육 제공

▶ 가맹점 유치부터 수수료 배당까지 전 과정 안내 ▶ 운영자 전용 창업/경영 교육 제공 투자자는 설명회 후

월 수익 \$2,000 ~ \$5,000 이상 가능 ▶ 개별제 계약 가능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가능

대표: 사라라 특 박사 (경영학 & 영업학 박사, 하바드 경영, 정치, 교육 대학원 Alumni)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아브라함 이 (MBA)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수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훌훌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주택 구매자 조건

-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치료로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 삼 못 이룰 정도로 제긋지긋한 모든통증 **/ ★**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力병이 아니다!

치료전 10여일 반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Tel. 213.385.3304 Cell. 213.503.

<u>l물</u>장어 판매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832)605-4890 - (281)501-2623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

묵은해 대추 : NO 쪄서 말린 대추 : NO : NO

화학비료 사용 : NO : NO : NO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 입니다

숙성된 퇴비를

하세요!

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10LBS-1BOX |\$150/10LBS-1BOX |\$100/10LBS-1BOX \$15/16 대추 \$12/16 대추 \$7/16 대추

\$12/16 대추는 \$15/16 매추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스카 추가요금



우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교통사고 치료 전문

了 MERCY 멀시착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한국일보 옆 건물 2종)



센터빌

Centreville, VA 20121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NEWST K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대표 브로커 703-899-8999 410-417-7080



5주 속성반

수업료:\$350 시작시 장하나. (교재비: \$100) <mark>뉴스타인 함께 성당함에</mark>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모시면 100% 합격보장!

어떤 점이라도 30일 앞에 달이트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집 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370,000 → \$388,000 \$18,000불 더 받고 팔림

버지니아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끝집,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7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좋은 환경에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정원



\$785,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1 새로꾸민 부엌과 마루바닥, 편리한 교통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625,000 Elkridge 타운홈 방 3, 화장실 2+2, 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

\$1,27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이쁘고 밝은 고급 집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1,425,000

NW 싱글홈

방 3, 화장실 2 체비체이스와 경제지역, 편리한 교통 고급 동네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센터빌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잘 꾸며진 이쁜 집, 이쁜 뒷뜰, 수영장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1,6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년된 새집,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집, 좋은 학군



\$750,000

실버스트링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 홈, 넓고 잘 꾸며짐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N. 포토맥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고급스럼게 잘 꾸민 집, 넓은 뒷뜰, 우튼 고등학교



\$3,59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6, 화장실 7+1, 차고 2 새집, 최고급 동네에 아주 넓고 이쁜 새 집





\$649,000 SE 타운홈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1,1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코스트코 근처, 벽돌집, 마루바닥, 환경좋은 고급 집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1,350,000

비엔나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편리한 교통에 멋진 고급 집, 최근 몇 년 사이에 업그레이드

\$1,9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차고 2 새집. 우드슨 학군, 모던하게 아주 이쁘게 잘 지은 집



\$2,100,000 맥클린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집, 넓고 평평한 정원과 이쁜 뒷뜰, 수영장

\$820,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3444 Ellicott Center Dr. #105,

企R 컬러 사진으로 만들어진



VA 703-496-4989 MD 410-618-4989

Tysons Corner, VA 22182 Ellicott City, MD 21043 롯데뒤 우체국 맞은편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집감정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